朝鮮日報 夕刊
二十一日(土)
本紙朝夕刊二十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代表電話 本局 二一九一番 市外專用 本局(長) 二一九七番 振替京城一九五七八
◆本社定期刊行物◆
少年朝鮮日報(日曜附錄)
雜誌『朝光』(月一回發行)
同『女性』(同上)
同『少年』(同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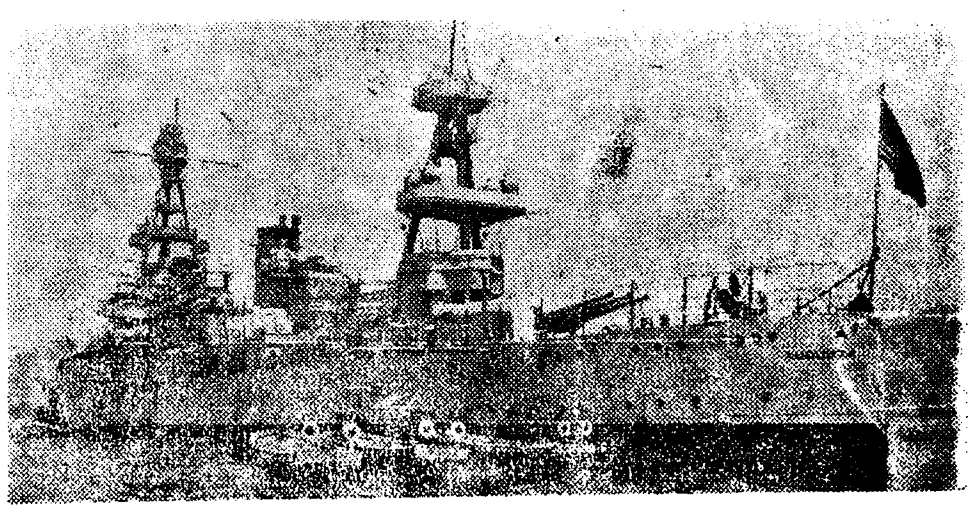
日益擴大되는 南北支戰線!

所屬不明의高射砲彈 米旗艦에落下! 一名即死、十八名重傷

【上海二十日發同盟至急報】二十日午後六時四十分 浦東上空에서 彼我空中戰中에 浦東稅關碼頭近處에 碇泊中이엿든 米國極東艦隊旗艦 어거스타號上 甲板에 高射砲彈一發이 落下하야 乘組한米國水兵一名은 即死하고 十八名의 重輕傷者를 내엿는데 右는 支那側高射砲의 流彈이라고뵈인다 그런데 米國海軍當局은 目下 一切의 言明을 避하고잇다

米極東艦隊司令官 日支兩當局에通告

【上海二十日發同盟至急報】米國極東艦隊旗艦 어거스타號에 落下한 高射砲彈은 上空으로부터 急角度로 落下하야온것으로 日支兩軍 어느便이 發射한것인지 不明이나 米國司令官『야넬』提督은 日支兩軍當局에對하야 米國軍艦은 國際法에基하야 必要에應하야 黃浦江을 自由로移動할수잇는 權利를가젓다 米國軍艦은 電燈으로 容易하게米國軍艦인것을 識別할수잇도록 하엿다는旨를 通告하여왓다



旗艦어거스타號의威容

어號事件에對한 루大統領談話

【華府二十日發同盟至急報】어거스타號事件은 米國官民에 大衝動을 興하엿는데 루즈벨트大統領은 廿日記者團과의 會見에서 同事件에對하야 左와如히말하엿다
어거스타號事件에 對하야 米國으로서 如何한 態度를取할가는 現地서決定될것이다

敵二百萬이라도 我軍必勝決意! 昨日道知事會議席上에서 小磯軍司令官披瀝

南總督이 昨二十日 各道知事를 招集하고 時局에關하야 重要訓示를 興하엿는데 그席上에서 小磯朝鮮軍司令官은 特히 軍部의 決意를 披瀝하야 官民一致의 後援을要望하는바잇섯다 即小磯軍司令官은 今回事變의 經過를 述한後

一、內鮮一體的機運의向上과 그施策
二、防衛特히 防空諸施設의 完備
三、銃後의 後援
四、戰時體制下에잇서서의內鮮産業의 勃興
五、對支戰鬪의 必勝의信念

을 强調하고 그 認識을 기피하야 官民의奮起를 要望하엿는데 特히 對支必勝의 信念에對하야는 皇軍이 北支에서나 上海에서나 約十倍나되는 新式支那軍을 擊滅擊退하고 我海軍航空隊는 조고만犧牲으로서 兩三日間에 敵百機를 破滅에 陷入케한 現實의 勝利는 이를遺憾업시 立證하는것이다라는意를述하야『敵總兵力二百萬의 大軍이假使同時에도 同所에서 서로對峙한다하더라도 我方은 이를擊破할수잇다』고하고 同胞로하여금 必勝의信念을 把持케하야 어데까지던지도 一體的鞏固한 團結을 持續하야 物心兩全의 萬全을 期하기바란다는 旨를力說하야 그決意를 披瀝하엿다 (寫眞은 小磯朝鮮軍司令官)

朝鮮軍司令官告諭

今二十一日 午後一時 小磯朝鮮軍司令官은 左와如히 告諭를發布하엿다
北支事變은 바야흐로 暴支膺懲에 轉換하야 日支全面的抗爭의 域에 드러가려한다 故에 我朝鮮半島는 即軍事上必要한 戰時體制에 轉移할機에 逢着하엿다 故에 軍의 所信을 披瀝하야 半島在住의 同胞에 告하고저한다
軍은 現下急迫한 日支兩國의 情勢에 即應하기爲하야 防空上 必要한 諸般準備를 마치고 바야흐로 그 實現에 드러가려한다 半島在住同胞는 儼然한 我朝鮮軍의 存在에 信賴하야 各各安心하야 其生業에 就하는 同時에 邊疆僻陬의地에 잇는 者라하더라도 恒常力을 上空에警戒하야 機先하야 彼의 行動을 探知하고 速히 最近距離에잇는 官憲에 報告하야 機宜를取함이 肝要하다 萬若 萬一彼의空襲을 밧는다면 그實力은이미 吾人이知悉하고 잇는바로서 問題가되지안는다 하더라도 這間冷靜沈着 勇猛敏速 平素訓練의 精華를發揮하야 統制잇는 一致團結的行動을 取하야 그企圖를破摧함이 緊要하다 大體로 今回 朝鮮軍이 나아가防空其他必要한 戰時體制를 整頓하고저하게된 所以는 豫備하고待期함으로써 彼가我半島를 窺覦할 斷隙이 업게하는 目的에 不過함으로써 一般同胞는 軍의目的을 諒知하고 이好機에防空上 必要한 補備的施設의 急速한 實現化를 計하며 또長期作戰에 即應하는 根本的施策을 講한다면 이는 곳半島防衛의 完璧을期하는 所以로서 此重責을 擔當한本職의 本懷로하는바로 어찌이以上바라리요 右告諭함
昭和十二年八月二十一日
朝鮮軍司令官小磯國昭

부로-드웨이大火

【上海二十一日發同盟】二十日낫부터夕刻에이러기까지의 彼我交戰中 이르난 부로-드웨이一帶의大火災는 二十一日午前에이르러서도 아즉鎭火되지안코 火勢는益益猛烈하야지고잇다

長驅奧地에飛翔 九江飛行場空爆 我空軍繼續活動

【上海二十一日發同盟】昨日我海軍航空部隊는 長驅支那奧地에飛翔하야 九江에잇는 敵飛行場의 爆擊을 敢行하엿는데 九江에서는 飛行場及 支那軍使用中의紡績會社建物에 命中되여 支那軍及 附近의 人心에 大動搖를招來하고잇다 廬山에 避暑中인外人도 續續避難을 開始하고 支那軍一部에 招聘된 伊太利人新空敎官의 家族은 香港까지撤退의 命令을바덧다

良鄕附近에서 日支兩軍衝突

【長辛店二十日發同盟】平漢線으로北上한 中央軍의 精銳第十、第八十三、第八十五의 三個師는 琉璃河를中心으로 集結하야 그中一部는 房山을 迂回하야 二十日 良鄕을 攻擊하여왓스나 我○○部隊는 即時猛烈한 ○○砲彈을 發射하엿든바 支那軍은 多數한死傷者를 遺棄하고 退却中이다

敵彈落下로損害甚大

【上海二十一日發同盟】今朝文路東亞洋行附近에 落下한 敵의 爆彈은 때마침 同所前에 邦人町內事務所가 設置되여 邦人自警團도 多數集合하고잇섯슴으로 被害가相當히만허서 一名即死、二名重傷의 外에 負傷者七名이나되고 門前에잇든 自動車는 猛烈히 불타고잇고 附近窓硝子全部는 破壞되엿다 그리고 他一彈은 한모리路橋附近에 落下하야 不發하엿다 이가치 多數의 被害에 邦人의 憤激은 그極에 達하고잇다

南京政府는完全히 主戰論者가支配 非戰論、妥協論은問題업다 急遽歸京한日高參事官談

【東京電話同盟】上海事變이 惡化하는 瞬間까지 南京大使館에서 死守活躍하다가 드디여 去十六日南京을 脫出하야 靑島로 避難한 日高參事官은 廣田外相의 招電에依하야 十八日靑島出發 二十一日午前九時三十分 東京驛着列車로 松村杭州領事와함께 歸京하엿다 同參事官은 着京後 即時 外務省에서 廣田外相에對하야 現地情勢의 詳細한報告를 行한後 休息할사이도업시 一兩日中에 上海로向할터인데 歸京途中 車中에서 左와如히 말하엿다
南京政府는 바야흐로 部內外를 通하야 强硬派의主戰論이 支配하고잇다 各種會議等에서도 强硬派以外의 者라던지 親日分子는 沈默을 직히고아무것도發言치못함으로 非戰論이라던지 妥協論은 存在치안코 議論으로서는 主戰論만이 支配하고 잇다고할것이다 日本과 戰爭하야 진다던가 이긴다던가 하는點에 意見相違가 잇슬뿐으로 支那側은 最近頻頻히 最後의 爭頭에 正面하고잇다는 等이란말을 使用하고잇는데 日本은 强하고 支那는 弱하다는것은 누구던지 認定하고잇다 弱者라하더라도 戰鬪하면 强者를 幾分이라도 弱하게할수잇다 妥協을하지안코나아다 弱者라도 一面强者를壓迫할수잇다는 생각이有力하여젓다 그러나 如斯히하면 二年이라던지 三年이라던지 行할수 잇는날까지 할바가업다 蔣政權이 假令 崩壞한다하더라도 只今으로서는 이에 代身할者는 업슴으로 實際論으로서 그리簡單하게 崩壞하지는 안흘것이다 只今까지 南京遷都論은 업섯는데 萬若遷都하는 境遇에는 南京全市를 全部 태워버리고 간다고한다 南京政府도 聯盟을 依賴하지는 안으나 第三國의 介入으로 事態를 有利케 誘導하려는策動은 頻繁히 繼續하고잇는데 只今까지로는 列國은 그리 움지기지안는模樣이다 그러나英國은 今回事變을 他人의것이라고 생각지안코 上海問題에 對해 熱中하고 잇는데 大體外國人은 一切理論을 구만두고 上海附近의 戰鬪를 回避하려고 생각하고 잇다 現在上海附近에 集結하고잇는 第八十八師、第八十七師는 蔣介石直系의 最優秀軍隊로서 支那空軍의 上海攻擊은 外人避難民이 租界로부터 撤退하는대로 即時 開始한다는以前부터의 計劃으로 決코 偶發的의것은 아니다 日本軍의 援兵이 오기까지에 上海陸戰隊이나 居留民이나 모도다 一切鏖殺케하려는 決心이엿든것이다

斷乎所信에邁進 地中海平和를拒否하면 伊首相外交演說

【팔레르모(시실리아島)二十日發同盟】伊太利陸海空三軍의 合同大演習은 皇帝에마누엘三世陛下의 親臨下에 去十一日以來시실리아島를 中心으로 擧行되엿는데 二十日演習이 終了됨에際하야 뭇솔리니首相은팔레르모港의 統監部에서 數千의 將兵을 아페노코 現下伊太利의 對外關係에對하야 一大獅子吼를 試하얏다 演說要旨는 如左하다
余는 이에地中海沿岸의 一切의國家에對하야 嚴重히 平和를 要請하라하는것이다 我等은이平和要請에 對하야 此等國家가好意를示하기를 希望한다 萬若拒否한다면 我等은 斷乎히 所信에邁進할뿐이다 大槪 파씨오伊太利의 實力은 自身의 運命에 直往하야 이것을 開拓할수잇는域에達함에잇는까닭이다

獨官憲에好感

【伯林二十日發同盟】二十日팔레르모港에서의 뭇솔리니 首相의外交演說은 獨逸官憲은 매우好感을 갓고잇는데 政府側見解를綜合하면 如左하다
一、뭇솔리니首相 演說은 伊太利政府의 外交方針을 明確히 宣明한것으로 今後 伯林羅馬樞軸은 드듸어强化될것이다
一、獨逸政府는 以前부터 伊太利帝國의 現實을 承認하는것이며 뭇솔리니首相이 英伊和協關係의 永續的確立을 希望하고잇는데 對하야도 全然同感이다 (寫眞은 伊首相)

佛蘭西는不滿

【巴里二十日發同盟】佛國政府當局은 뭇솔리니首相의 演說에對해 愼重한態度를 取하고特히佛伊關係에 關한 部門에 對하야는 批評을留保하고잇는데 뭇솔리니首相의 所說을 要約하면 左와如하다고 不滿의비출뵈이고잇다 萬若佛政府가 今回聯盟으로부터 決別하거나 又는 그對內政策을 修正한다면 佛伊兩國關係는 改善될것이다 또뭇솔리니首相의 平和要請에 對하야는 如左한 批評을 내리고잇다 뭇솔리니 首相은 平和의熱意를 强調하고 잇스나 他方으로는 地中海의地域에 某種政體의 存立을 容認하고잇다는旨를述하야 이제것 平和提唱도如斯히하여서는減殺되지나안흘가 佛政府는 英政府와 同條各國國民의 主權을 尊重하고저 一國의政體如何에 不拘하고이를 排斥하려하던지

敵砲兵我艦砲擊

【上海二十日發同盟】午後十時十五分 浦東後方의敵砲兵陣地로부터 黃浦江上의 我艦艇에對하야 砲擊을開始하여왓는데 我艦艇도 이를反擊하야 砲聲이 殷殷하야 月明의上海全市에 轟轟하고잇다

山東方面狀況

【東京電話同盟】海軍省公電 山東方面의 狀況에 關하야 二十日靑島海軍武官으로부터 海軍省에 如左한 公電이잇섯다
膠濟鐵路局은 昨夜日本人職員退去後運轉專用車를 搬出하야 實質上濟南에 移轉하엿다 濟南에 赴任한(光廷)委員長도 當地에 歸還할는지 안할는지 이를不明이다

六百의敵潰走

【良辛店二十日發同盟】良鄕西方의 炸里村에잇는 約六百의 敵은 二十日午後一時頃 我의數回에 亘한 飛行機偵察에 놀래여 大房山方面으로 潰走하엿다

九月聯盟總會에 南京政府가提訴?

【倫敦二十日發同盟】南京政府는 頑强히 對日抗戰을 繼續하는 一方모든外交手段으로서 列國을끄러드려 對日干涉을 行하게하려고劃策하고잇는바 倫敦大使館側情報에依하면 南京政府는 九月의聯盟總會를 目標하고 近近規約第十七條를 援用하야 聯盟에 提訴할意向이라고 觀測되고 乃至는 이데올로기上의 紛爭에끌러드러갈것을 滋味업게여인다

米國務省 支那旅行禁止

【華盛頓二十日發同盟】米國國務省은 支那의 擾亂한事態에 鑑하야 支那向旅行者에 對하야 旅券發行을停止하고잇다고한다 그러나 旅券請求者가 緊急必要를 說明하는境遇에는 下附하나 米國婦女子에對해서는 絶對로下附치안흘方針이라고傳한다

二十九軍의 敗殘兵擊退

【濁流鎭二十日發同盟】去十六日早朝追擊을 繼續하고잇는 二十九軍의 敗殘兵便衣隊數百名이 ○○方面에서 警戒線을 突破코 我에 挑戰하야왓스므로 激戰後擊退하얏는데 敵은 多數의 死體及武器彈藥을 遺棄코 遁走하얏다 이戰鬪에서 我方은 戰死一名、輕傷二名을 내엿다
戰死 一等兵 釣 寅次
輕傷 上等兵 肥塚 賢夫
同 一等兵 前田 善藏
이것은 ○○部隊最初의犧牲이다

英人警團一名負傷 豐田紡績一部燒失

【上海二十日發同盟】日華紡浦東工場의火災와 前後하야 今日午後三時頃 上海西部郊外의 豐田紡績의工場에 火災가 이러낫는데 倉庫의一部를 燃燒하고 八時頃 鎭火하엿다 同工場은 時局險惡化以來 閉鎖되여 邦人工場職員은 租界內로 撤退하엿스므로 邦人의 被害는 업섯스나 邦人撤退後警備에 當하고잇든 英國兵一名 支那巡警一名이 負傷하엿다

南支邦人 廿四日까지全部撤退

【香港廿日發同盟】福州在留의邦人은 廿日午前 全部撤退하얏는데 廈門在留民도 目下撤退를實行中이며 廿四日까지는 撤退를完了할豫定임으로 이로써 南支那의邦人은 全部撤退를 終了한셈이다

南洋煙草와 日華紡績延燒中

【上海二十日發同盟】東부로-드웨이 南洋煙草會社及浦東의 日華紡績第二工場은 目下盛히 延燒中인데 黑煙이 衝天하고잇다 (二十日午後六時二十分)

日支事變에關해 獨逸의『뉴쓰』統制 日本에極히有利

【伯林二十日安達同盟特派員發】獨逸宣傳省은 十九日의 恒例新聞會議에서 日支事變에關한報道의件을 上程審議의結果 日本에 極히有利한 뉴스統制를決定하엿다 從來의日支事變은 兩軍의小規模인 衝突範圍內이엇슬때에는 日支雙方의見解說明을 比較的自由로 取扱하야 따라서 新聞紙上에 矛盾撞着의 뉴스가 雜然히 揭載되고잇든狀態이엇는데 現今의衝突은 兩國의全面的戰鬪로化한結果 宣傳省은 뉴쓰統一의必要를痛感하고 特히支那의人民戰線的性質에鑑하야 그宣傳其他에 嚴戒를加하도록 各新聞社에通達하엿다 但獨逸外交의 表明하는 中立主義에 變化는업다고 한다 新聞會議의內容은 極秘에附하야 詳細한點은 不明이나 大體 如左하다고觀測된다
一、支那의宣傳은 原則으로發表치아니함
二、對蘇戰略上 北支의地位를重視함
三、戰爭에關하야서는 上海電外에 特히 東京電을 活用하야 正確을期함
右뉴스統制는 日獨防共協定의線을 確保하는 政治的方針이 對支經濟關係에左右되든 機會主義를 克服한 最初의實績이라고傳한다

日華紡績灰燼

【上海二十一日發同盟】昨二十日夕刻敵의爆擊에依하야 發火한 浦東의日華紡績은 二十一日午前七時頃까지 全部灰燼에 歸하엿다

人事·集會

◀柳生繁雄氏(總督府社會課長)平北水害地視察中二十日夜歸任
◀關口聽氏(平北內務部長)水害狀況報告及復舊豫算協議次二十日夜入京

號外三次發行

本社는 今二十一日午前中 三次號外를 發行하엿슴니다

孔祥熙突然歸國延期

【제노아二十日發同盟】南京政府財政部長 孔祥熙는 十九日 제노아市로부터 獨逸汽船샤보스노로 乘船歸國豫定이엇는바 突然 船室의豫約을 取消하고 南獨逸의 나우하임溫泉에 가기로 決定하엿다 歸國延期의 理由는『休養하기爲함』이라고稱하나 時節이 時節인만치 여러가지風說이돌고잇다

八面鋒

◇不擴大主義에서 膺懲主義에、北支事變이 對支事變으로 轉換。
◇第三國의介入을 不許하고日支兩局間에서 解決한다는 根本方針을 首相이言明。
◇今日부터 第二學期開學。時期로도 燈火可親의 조흔때、學生은 무엇보다도 工夫에 熱心할때。
◇배울때배우지안코면 後悔할날이 잇다는 것쯤은 누구나아는平凡한일。
◇그러나 平凡을직히기 어렵고 平凡을犯하기어려운것이 凡人의凡事。

今日少年朝鮮日報發行

劇團靑春座
◀北鮮巡演出程▶
名優陣(가나다順)
金東圭 金雲峰 柳玄 柳長安 李東胡 卞基鍾 卜元圭 沈麟澤 韓一松 黃淑 金鮮英 金仙草 金淑英 尹百合 池京順 遠美鈴 車紅女 崔壽美惠
△日程及場所▽
八月廿一日 廿二日 廿三日 廿四日 元山·元山館
廿五日 廿六日 廿七日 廿八日 咸興·東明劇場
廿九日 三十日 三十一日 吉州·吉州劇場
八月卅一日 九月一日 羅南·初瀨座
九月二日 三日 四日 淸津·共樂館
五日 六日 城津·遊聚座
七日 八日 興南·昭和座
九日 十日 永興·永興劇場
十一日 十二日 高原·興樂館
京城竹添町一丁目 東洋劇場

劇團豪華船 (歸京) 納涼公演
◀全鮮巡演·凱旋公演▶
八月廿一日낫부터
豪華船員
徐一星 張岸 朴孤松 金鐵 尹範春 曹昌華 洪昌燮 金元浩 全景秀 孫一平 朴昌幾 金陽春 李正順 劉桂仙 姜寶金 文貞福 嚴美花 崔英善 趙英淑 朴玉草 [illegible]石齊
△上演三大名劇▽
李雲芳作『꿈꾸는여름밤』一幕
林仙圭作『아들도라오든날』二幕
南宮春作『慈善家萬歲』三場
오래동안 全鮮各地의 巡演을 良好한成績으로맛치고 歸京한 劇團豪華船은 三大名作劇을 내걸고 新秋納涼의 幕을 오늘(二十一日)낫부터 本劇場에서 열엇습니다 右記三大名劇을보시고 하염업시 흘으는 눈물과 걷잡기어려운 우슴으로 더위에시달니신당신의몸을 慰勞하소서

京城筆頭全朝鮮要地 燈火管制遂實施

二十一日午後七時부터開始

府防護團各各部署에

【朝鮮總督府檢閱濟】 북지사변이래 경성부 방호단(防護團)에서는 방호의 만전을 기하고저 모든 준비를하여오든바 이십일일새벽령시오십분 명령을 바든 좌백(佐伯)경성부방호 단장은 그날 오전아홉시 시내에잇는 방호구단장(區團長) 분단장(分團長) 수상단장(水上團長) 특설구단장(特設區團長)을 소집하고 이십일일 오후일곱시부터 시내에 등화관제(燈火管制)를 실시한다는 지시를 내리엿다 등화관제는 경기도 관내를비롯하야 전조선중요지에도 실시할터로 등화관제의 요령은 소화십이년도중선방공연습 등화관제규정(中鮮防空演習 燈火管制規定)을 준용하기로되엿다

【總督府檢閱濟】 이십일일오전아홉시 좌백(佐伯)경성부 방호단장은 시내에잇는 방호구단장(區團長) 분단장(分團長) 수상단장(水上團長)특설구단장(特設區團長)에게 다음과가튼 등화관제에 관한 사항을지시하엿다

一、今日午後四時 防護團을 召集하고 左와如히處置할것

午前〇時五十分 防空의 命令을바듬에 따라서 左와가티實施함

가、防護團員은 全員召集、一旦配備에就할것

나、配備決定하고 各員自己의 守地에就하야 其任務、處置를諒得하야 防護分團本部及警報班을 除한他는解散하야 自宅에在하야 待機할것

다、分團長又는 水上防護團長은 本部員의 服務에對하야 指示할것

라、分團長은 警報班의 服務交代에關하야 所要의 規定을할것

二、今日午後七時以後는 燈火管制를 實施할것

燈火管制의 要領은 昭和十二年度 中鮮防空演習燈火管制規定에 準用하야 警戒管制에 移하기爲하야 屋外燈에關하야는 主로 電氣會社 其責에任하나 會社로부터 助力을 必要할境遇는 各分團은 可及的此에 應할것

神社特設防護團의 增加要員은 午後五時 其擔任個所에到하야 所要의 指示를바더 自宅에서 待機할것

二、昌德宮防護團增員의 差出區分은 如左함

四、略

自動車는 時速二十哩 電車는 十哩로할것

空襲管制에 잇서서는 燈火는 全部遮蔽하고 時速八哩自動車道路의 一側에 停止自轉車는 消燈하고 손으로 끌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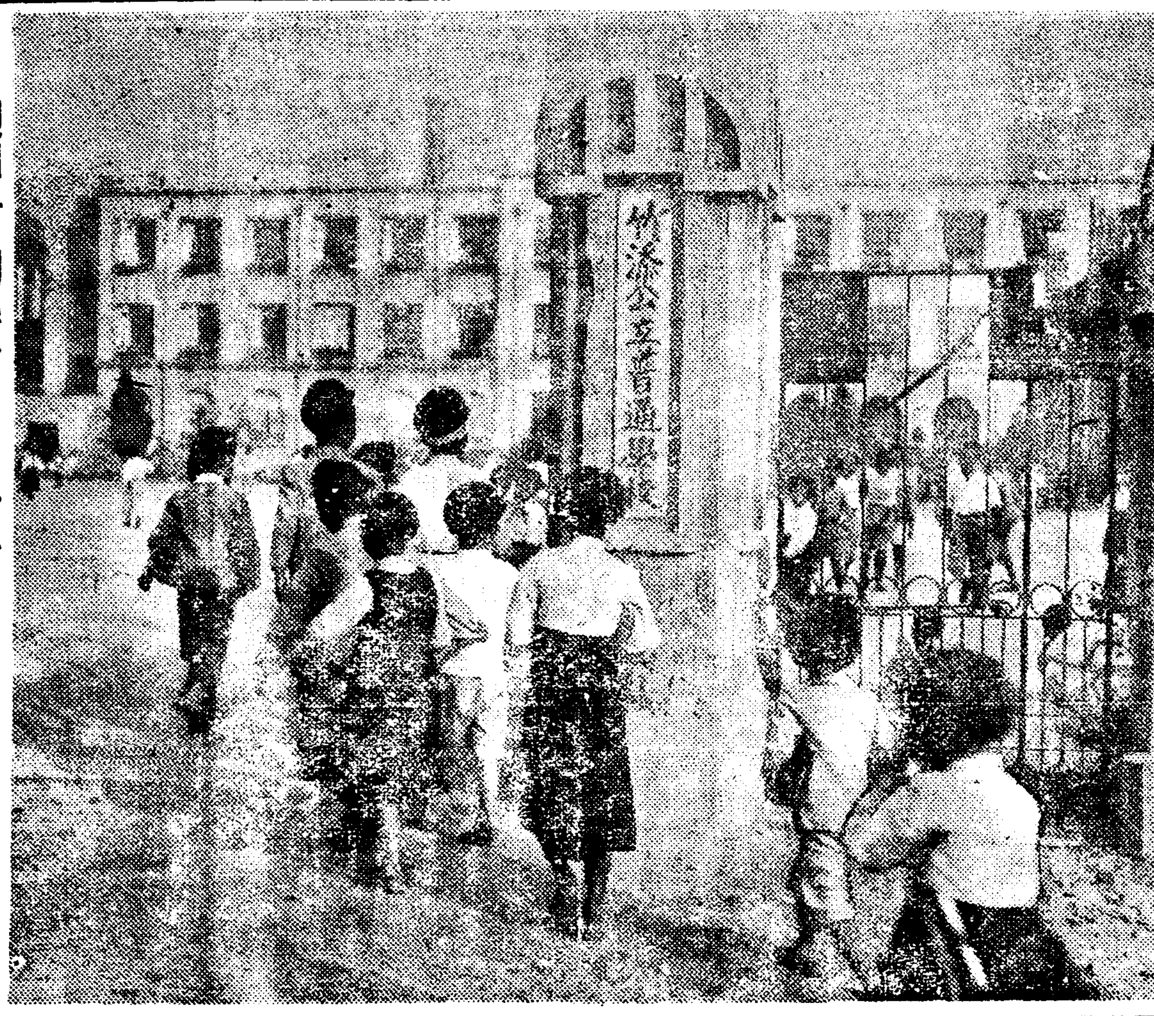
但軍의 指揮用自動車 消防車는 此限에 不在함

防護團本部分團本部의 自動車는 各一臺限하야 消燈을하고 徐行함을得함

七、防護資材內에 府로부터 交付할豫定의分은 急速히交付하도록 努力할것

右以外의 分은 各分團에서 可及的速히 充容하도록努力할것

八、經費의 支出에對하야는 目下究硏中



깃거운 開學날! 오늘부터 二學期!

屋外燈은全部消燈 屋內는待機程度

自動車는黑布로蔽光、自轉車는減光

"警戒管制"와市民의注意件

【總督府檢閱濟】 이번의등화관제(燈火管制)는경계관제(警戒管制)이므로비상관제(非常管制)와달라서『싸이렌』을울려서경보(警報)를발하지는안코다만방일곱시부터 옥외등(屋外燈)은 전부일제히꺼버려서 공중에서 불빗이보이지안토록하는것이다 집밧게잇는전등은어떠한것이나를 물론하고 전부 꺼버리게하는데 그것은 끄는책임은 경성전기회사에서 대체로 마타하기로 되엿다 옥외등가운데서도 교통신호(交通信號燈)만은 끄지안키로 되엿다그러고 옥내전등(屋內電燈)은언제라도 규정의경계관제를 실시하도록 준비는 해두고 당분간은 그냥그대로 켜두도록되엿다 그런데 그경계관제를 실시할수잇도록 준비를하여두라는것은 다른것이아니고 경은회점이나 겹은조히로서 보재기를 맨드러서 전등갓우에 들러씨우고 다만아래쪽 즉방바닥쪽만은 구멍을뚤레두어서 바누질을하던지 글을읽든지 기타무슨사무를보는데에 아무지장이업시하여두면조타

공장이나 빌딩사무실가튼데는 검은헝겁으로맨든『카텐』(방장)을 준비하여두어야한다 자동차는『헤드라이트』에 검은 헝겁을 가리우고 자전거는 촉수를 주리워야한다 그러고왕가용(王家用) 관청용 군용 경찰용 구급용(救急用) 체신용 문통신용등의자동차는『헤드라이트』는를 검은 헝겁에 각기소정의 부호를 삭여너어가지고 운전하여야한다

上海로부터避難同胞 百六十八名上陸

仁川入港平安丸으로

【仁川】 상해사변역시 전지중대하야지고잇서 항상거류민의 안위가 념려되고 잇든바 지난이십일일 오전오시 인천으로 입항하는 평안환(平安丸)으로 거류민일백륙십팔명이 상륙하엿는대 이는 전부상해(上海)방면으로부터귀환된 거류민으로 그외에도 방금 상해전반에서는 귀환준비를하고잇다한다

身勢를悲觀코 酌婦兩名投江

작부로팔려간 가튼운명의 량소녀가 막막한 장래를 비관코 새벽한강에 서로끼고 투신자살을 한눈물겨운사실이잇다 시내하중정(河中町)이십삼번지에서 두부장사를하고잇스며 시내신정정(新井町)오번지 김수만(金壽萬)의 경영하는 료리집 만춘강(萬春江)에일백오십오원에 팔려온 리정희(李貞姬)(二〇)와 최명녀(崔明女)(二一)은 수양녀로잇스며 동시에 작부로지나는데 그들은 서로신세의 가련함을비관하고 이십일일새벽한시쯤 [illegible]을미신뒤에 서로노끈으로 허리를매고 가티한강에 투신자살을하엿다 새벽여섯시에야 그들이 집을나간것을 발견한주인은 한강으로 나가보앗스나 오전여덜시에 그들의신발만 강가에 노혀잇는것을 발견하고 소관서에 보고한후에 동아홉시에 그들의시체를 하중정[illegible]번지압 강기에서 발견하엿다

三湖와退潮間 列車脫線

【咸興支局電話】 이십일일오전다섯시삼십분경에 청진(淸津)을떠나 경성으로향하는 제오백사렬차가 삼호(三湖)와 퇴조(退潮)사이를 진행중에 원산기점 일백칠십삼키로 부근에서 기관차가 탈선하엿스나 인명의피해는업섯다 사고가 발생되엿다는급보를드른 함흥역에서는 구원렬차를 현장에보내여 오전열시에 복구되엿다는데 사고의원인은 목하조사중이다

防空豫算支出同時에 防空法도實施

總督府의防空萬全策

【二十一日午後二時朝鮮總督府發表】 일지관계의 전면적악화로인하야 조선내 방공준비는 마침내 절실한필요를 늣기게 되여 총독부에서는 관청방공비 예산으로 위선오만사천원을 지출하여 근근각필요방면에 배부하기로되엿다 내지의 방공법은시월상순으로 닥처서 시행하는동시에조선도 부득이 내지와가티시행하기로되엿다 제국방침이불확대방침을 응징방침으로 변경함에따러 군부에서는 조선내 방공령을 내리엿다이에 의하여 총독부에서는 군부와만전의 방공협정을 행하여실시할터인데 그내용의 대개인즉 방공감시소 설치 교통통신시설등화관제 방호단 활동등에적용신국적으로 지출하기로되엿다

全朝鮮學童生徒 愛國運動에動員

學課時間마다時局認識을强調

學務當局時局對策

제이국민의가륵한 애국심을고취하야 참으로거국일치의 총후적성을다하기위하야 총독부학무국에서는 전조선각학교를 총동원하야 대대적으로 애국운동에 진출하기로되여 구월일일"애국데ー"에 여러가지 행사를하기로되에 대개다음과가튼 일을 시하기로되엿다

一、조례와강당훈화시간에 시국의추이(推移)와 황군의충렬무쌍한활동에관한이야기、비상시 국봉을위한 총후적성에대한강화를행할일

二、수신、역사、기타학과시간에 국민정신작흥에 노력할일

三、작문제목은 시국에관한것을 만히하야 생도로하야금 인식을 철저히할것과 그성적품은 출정군인의 위문에공할것

四、아동생도의 자발적위문헌금등은 실습작업등모절약에서하기로하야 학부형의 부담이되지안토록할것

五、그학교관내에서 출정한군인의 유족가족의 위문을 하도록하여 여러가지 일을돕보아주도록할일

六、학예회 운동회 수학여행등 모든행사는 신중하게하야 전히

七、교우회 동창회등기관지를시국인식에 도움이 되도록할일

八、희부형회등을 자조여러생도의가정에대하야서도 시국을인식케할일

九、시국뉴ー스 사진등은 언제든지학교에오는사람에게 보히도록할일

十、희교직원은 구역을담당하야 부락(部落)에서 강화를하며순회강연을하야 일반민중에대하야 시국선전에 노력할일

簡保宣傳班活動

『강력의국가는 국민생활의 충실안정으로부터』『국민생활의충실안정은 간이보험으로부터』를 슬로간으로하야 변도초부터 각방을 순회하야 선전에 노력하고잇는 경성체신분장국의 간이보험활동사진반은 이번에 또다음과가튼 지방의 요망도잇서오는 이십사일부터 가입자위안을겸하야 출동키로 되엿는데 개최각지에서는 지금부터 고대하고잇다

八月二十四日	忠南	上村
同 二十五日	同	海美
同 二十六日	同	安眠
同 二十七日	同	泰安
同 二十八日	同	洪城
同 二十九日	同	鰲川
同 三十日	同	周浦
同 三十一日	同	結城
九月 一日	同	仙學

全日本中等陸上 開幕

百米와千五百米에五名이入選

培材連續一着의快氣焰

【東京支局特電】 日本學生陸聯主催의 第二十三回全日本中等學校對抗選手權大會第一日은 二十一日午前九時三十分부터 明治神宮外苑競技場에서 中學部百四十五校 師範部三十五校가 參加한가운데 盛大히 開幕되엿다 이날은豫選競技를 하엿는데 百米第一豫選에는 培材의 金裕澤、朴春培 李東顯三君이 모다 一着으로入選(二十組가出場하야二着까지되엿스며 千五百米豫選에는 池永龍君이 四分二十六秒二 劉寬興君이 四分二十八秒로 모다一着으로入選되고 李鍾燕君은 앗가웁게도 三着되여 落選되엿다 正午까지의 競技에出場한 培材軍은 連續一着을 차지하야 萬丈의氣焰을吐하고잇다

平康仙道敎事件 殘黨九名送局

警官九名護送京城에

【平康支局特電】 平康仙道敎(仙道敎)사건의 피의자 십륙명중 지난칠월 일일부터 제일차로송국된이후 대선생(大先生)김홍기(金弘基)일당은 그후석방되고 남어지여덜명은 이십일일 오전여섯시 평강(平康)발렬차로 사법주임외아홉명의 경관에게 호위되여 경성지방법원검사국으로 넘어갓다

十九日送局者

▲黃海道新溪郡麻西面番池里 李連玕(三一)
▲同上 安秋森(四五)
▲同上 徐世煥(三二)
▲京畿道長湍郡小南面柿峴里 金仁權(二九)
▲黃海道金川郡牛峯面牛峰里 金大錫(四〇)
▲平安南道順川郡厚灘面石井里 朴賛俊([illegible])
▲江原道金化郡任南面水洞里 吳竝根([illegible])
▲京城府[illegible]里町九八 金東奎([illegible])

裁寧稅務署落成

【裁寧】 이만여원의 총공비로 공사중에잇든 재녕세무소(裁寧稅務所)청사는 준공되여 지난 십사일오후한시 신청사에서 평양세무감독국장을 비롯하야 수백명의래빈을 마저 성대히락성식을 거행하엿다고한다

天氣豫報

今夜는 개엿다 흐렷다한다 明日도 개엿다 흐렷다하나 어쩌면 비가온다 京畿全區도갓다

昨日最高 三三度一
同 最低 二三度四
今朝最低 二三度七
今日正午 二二度二

朝鮮料理 八珍園出現
京城湯飯、大邱湯、魚腹湯、年鷄白熟、龍鳳湯 鷄湯飯、安東곰국、晉州비빔밥、餠湯、饅頭 溫麵、平壤冷麵、갈비찜、스기야기、辨當、酒類等을非常時의奉仕的으로 酬應하오니 一次枉臨을歡迎하나이다(二十圓以上注文時에는電話料를負擔함)
特長 ◎親切丁寧、飲食精美 ◎隨時宴會室內淸潔 ◎電命時에即時配達
京城府瑞麟町一一五ノ一(前鍾路警察署前) 八珍園 電光四四一三番 主人 愼相玉 白

小兒科專門 醫學博士 方斗翰
京城府齋洞町四街路(入院隨意) 電光三五五三番

京城中等公民學校 補缺募集 ◇出願期限九月十五日 ◇案內要郵券 太平通 大漢門橫入

內科 一般外科 整形外科 レントゲン科
醫學博士 三浦良雄
三浦外科
八隅病室完備 京城府南大門五丁目一八(京電裏) 電話本局②一八四八番

精力强進劑 參茸トニク
虛弱者의體質改善에! 健康者의精力增進에!
特히 男子의早老에効果百%
(諸疾病에對한醫學博士實驗報告書와見本無料進呈)
三越、丁子屋外各地有名藥局에서販賣 二圓八十錢、五圓
京城鍾路三丁目 製造元 慈善堂製藥株式會社
京城本町四丁目 賣捌元 株式會社 木村藥房

工業指導
小資本으로누구나할수잇는各種工業을敎授하는規定書二錢郵票封入請求하면送呈
『工業用藥品・釀造用品・化粧品原料・菓子原料・各種芳香料・色素及染料・漢藥及賣藥』販賣商
京城府蓮池町七七 日光社工業部 振(京)一五三二一番 滿洲吉林省支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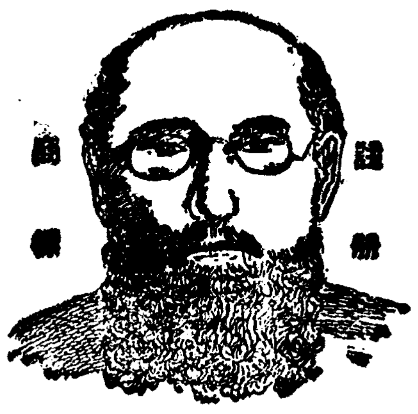
朝報案內
文部 一府一支部長募集하며 高尙한文化事業이며收入相當 希望者는規定書請求 京城府樂園町一〇四番地 新譜레코ー드聯合會本部 檢東洋行
寫眞機 [illegible]
支那語講師招聘 (要履歷書面談決定) 京城中等公民學校
集金 係募集廿五才迄希望者ハ履歷書携帶本人來談アレ但シ保證金二百圓及ビ市內確實ナル保證人二名ヲ要ス面會時間午後一時ヨリ三時マデ 京城本町二丁目 株式會社 村木時計店京城出張所

理研淸酒 新世界
바람시원하고 안주새롭고 술맛써조타
防腐劑안들고 宿醉업습
大鮮釀造株式會社

安川コロダイン
腹痛과胃腸은 効力百퍼ー센트
胃腸病으로 이러나는모든障害에 瞬間에는妙効잇는 優秀한救急藥으로서內外에 盛히賞用되는模範藥입니다
各地藥店에잇습니다
東京 安川見榮堂

호루몬過剩은귀찬한것
더위에疲勞된살결에、알맛게自然히호루몬의分泌를促進하는것이라세랑
그러므로、여름의刺戟에서 살결을 직히는데는 아주고만이고、가틀면
거름이라도살빗이 달려서 小麥色으로 윤택하고유쾌해서、쓰든 氣分이며
로운듯다。
라세랑藥用의크림
マスター・バニシング
ほんとのバニシング 참말의바니싱

小資本經營
健胃强壯藥、鎭痛藥、止血藥、痔疾藥、小兒藥、解熱藥、鎭咳藥、眼疾藥、口中藥、淋疾、梅毒藥、腎臟藥、強心藥、胃腸藥、止瀉藥、皮膚病藥、消毒藥、冷痛止汗藥、神經痛藥、皮膚外科藥以上各種藥其他藥店向物品取次
委託店及配給特約店을男女老少를勿論하고募集하오니 希望者는左記各項을記入하여申込하시요
記
一、履歷의槪況、開業營業의場所
一、投資豫定額特約委託店、支店出張所
一、朝鮮日報名記入申込하시는분에게는特別優待합니다
京城府樂園町二〇九(電光九一二三番)
各種賣藥 寶丹等 卸商 漢城藥館本店 地方部 白



아무거나·쓰리지안코·爽快하게잘듯는

대학목약

大學目藥

眼科專門大醫

醫學博士 河本軍次郞氏
醫學博士 小玉龍藏氏
醫學博士 吉田義治氏
醫學博士 山中崔之氏
醫學博士 豊田正達氏
推奬

半島의舞姬 崔承喜孃曰
名眸의秘訣은大學目藥의愛用에잇습니다、同胞諸孃이여 彼此에 아름다운强한눈을가집시다

流(류)線(선)型(형)容(용)器(기)

—스마一트하고便利한自動點眼容器—

001053

體千兩 目九百兩
눈의治療에힘쓰라

眼疾原因의거의全部가 不潔과 榮養不良에잇습니다、塵埃와 煤煙과 때에더러운얼골과 눈을씻지안커나더러운손으로 눈을문지르거나해서 眼疾이생깁니다、太陽의强한紫外線과 컴컴한電燈下에서 일을하거나 細微한文字를읽거나하는일로해서도 눈은 疲勞하야 弱해집니다、눈이붉어지거나 눈곱이끼거나 좀아푸거나할때에 곳治療를加하면病이되지안코 말것이라도 治療를 加하지안코버려두는故로病이되는것이며病이된뒤에는 治療가길게끄는것입니다

眞正한 治療法과
눈을强하고곱게하는法

眼疾의眞正한治療法은 于先大學法眼藥(目藥에添付)一錠을곱부半分의 熱湯에녹여서 시긴뒤에 까一제에 적시어눈의안팟을 輕하게 몃번이고 씻습니다、다음에大學目藥二三滴을 點眼합니다、이것을 每日三回 꾸준히 繼續하면지금까지좀처럼낫지안튼眼疾도顯著히快差해갑니다。또、지금은눈이나뿌지안트래도 每日豫防해두면眼疾이되지안코맙니다、그것은 每朝洗面後에大學目藥을一二滴點眼하면고만입니다、아츰엔 눈곱이끼고해서 不潔할때오니 每朝點眼하시면 언제나 强하고 고운눈을保有할수잇습니다、特히婦人의美眼法으로는이것이第一입니다

大學은 權威잇는
世界的高級眼科藥

大學은眼科醫學의泰斗五大博士의推奬하시는바 治療力이極히强한目藥으로殺菌、防腐、收斂의効果와專賣特許製劑우르비올레긴이라는 紫外線防止藥까지配劑되엿는故로단한가지로實로左의세가지作用을가젓습니다。
一、眼疾을速히治癒하는힘
二、눈을아름다웁게하는힘
三、紫外線의害를防止하는힘
따라서眼疾이잇는분이쓰시면速히回復하고、健眼하신분이쓰시면强한눈·고운눈이되고、老人이쓰시면視力이回復되고바다와山에서쓰면紫外線의害를밧지안코맙니다。

아이들에겐 小兒用大學目藥

大學目藥은조금도아푸거나쓰리지안코써 爽快한氣分을주는故로아이들에게쓸지라도괜찬습니다마는 十歲以下의小兒에게는小兒의눈에맛게한小兒用大學目藥이잇습니다

硼酸보다나흔大學洗眼藥

大學洗眼藥은 最新殺菌藥녀이보르미친을主藥을삼은强力한消毒力과治療力과點眼藥의作用을돕는 効果가잇는洗眼藥입니다 大學獨特의創製品으로完全消毒싸니테一프御裝을하야大學目藥一瓶마다添付하엿습니다 不足하시거든洗眼藥만의賣品도잇습니다

適應症
○돌림안질 ○爛目 ○淚眼 ○도라홈 ○血目 ○疲勞眼 ○다래끼 ○麥粒腫 ○結膜炎 ○쑤시는눈 ○霞目 ○호린눈 ○光線眼炎 ○雪目 ○打目 ○상한눈 ○잘눈 ○진안질

定價

人造龍甲케一스付	
一瓶入	三十錢
二瓶入(케一스一個)	五十錢
補充用 特大瓶付(圓)	一圓
케一스업시	
試用瓶	十錢
小瓶	二十錢
大瓶	三十錢
德用	五十錢
(小兒用)	二十錢
大學洗眼藥	
十錠	十錢
廿一錠	二十錢

全國各地藥房에서販賣함

大阪北濱 參天堂株式會社

우리차지

윤순이공부

우리 윤순이는 심심해서 혼자는 공부를못한답니다. 그래서거울이란 거울은 다갓다가 책상 우에다가 죽ㅣ늘어노핫답니다.

(경성사랑 유봉순)

家庭

속거북한사람은 음식오래씹도록

위산과다증과위액분필과다증

가슴이 답답하고 시금털털한 물이 목구녕에 올너와서 깨롭해지면 이것을 위산과다증(胃酸過多症)으로알기쉽습니다.

그러나 어것은 위산과다증이 안이고 위액(胃液)의 분필과다(分泌過多)때문에 이러나는것입니다.

위산 과다증이라 하는 것은 위액중의…산도(酸度)가 너무만흔것을 말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위액분필과다증이라고하면 산도는보통이라도 위액자체의 분필이 만흔것입니다

이러한 위산과다증이나 위액분필과도증은 각각그사람의 체질과성질과 생활습관에 따라서 이러나는것인데 그증세는 모다 갓습니다

가슴답답한증세는 위산이 위의점막(粘膜)에 작용하야 염증(炎症)을이르키는까닭에 이러나는것입니다 쫑을혹식은 더말할것도업고 진한커피차나 후초 고초가튼것이나 찐것을 만히먹고 또는 술 담배가튼 자극성잇는 것을먹는사람에게 어러나기쉬운 것입니다

따라서 가슴답답증이 이러나기쉬운사람은 소금 담배질 기름 동물성 음식을 될수잇는대로먹지말도록 하는것이조습니다

만약 가슴답답증이 중할때는 음식을 전연폐지하고 아모것도 먹지안흔것이제일입니다. 그래서 조곰진정이 되거든 기름기업는 나물음식을 먹고차차 식물성담백질ㅣ가령 두부가튼것을 먹도록하는것이 조습니다 위산의자극이원인인까닭에 초를 너흔음식은 먹지안흔것이 조습니다.

가슴답답한증세의 사람은 이상하게도 음식을 만히먹게됩니다 이것은 해로운것이니 될수잇는대로 음식을 조금식 잘씨버서먹도록 하는것이 조습니다

이것은 습관을 만들기에 잇스니 한번먹는음식은 보통열다섯번이상 씨버서 먹도록 하십시요 잘씹으면 씹을사록 침과 잘석겨서 적당한 죽가티 되므로 식도에 잘너머가는것입니다

이러케먹으면 적은음식이라도 소화가 잘됨으로 만히먹지안허도 배가불너서 자양가치가 만습니다. 적게먹고 잘씹어먹으면 위의부담이 적어저서 위액과위산의 이상분필이 업서집니다.

단것은 위산분필을 막는것이니 조금식 먹는것도 조습니다. 그러나 왜떡가튼것은 담배질이만흐므로 해롭습니다.

가슴답답증이 생기면 지금까지는 중조제(重曹劑)를 썻스나 이것은 탄산가스를 발생시키므로 도로혀 자극을 더주게 되는것입니다. 이것은 의사만이 안이라 일반의 상식으로 되여잇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약을쓰는가 하면 가성마네심을 쓰는것이 조습니다. 이것은 중조보다도 산의중화력(中和力)이 갑절이나 되고 탄산까스를 발생시키지 안흐며 또한 식물성신경의 흥분을 억제하는 힘이잇습니다.

위가 아프면 잘못수약가튼것을 쓰기쉬습니다 그러므로 충분주의하지 안흐면 안됩니다

요사히매약으로 규산염류제(珪酸鹽類劑)가튼것이 이병에는 효험이잇습니다

고구마 쪄먹는법
이대로만하면 참맛잇습니다

벌서부터 고구마가 새로나왓습니다. 여름더위에 지처서 입맛이업슬때 이것을 먹는것은 입맛돋우기나 영양으로보아서 대단히 조습니다.

고구마는 무엇보다도 쩌먹는 것이 제일입니다. 고구마껍질을 벗겨서 서너푼두게로 돈모양으로썰읍니다.

그리하야 백반을 조금너흔 찔끌는물에 너허서 슬적 찝니다.

이것이 반쯤저지거던 건저서 채반에언저두엇다가 맑은물에잘 씨서버립니다。

이러케씻슨 고구마 팔십양중에 정종반홉염량열양중 소금두돈중을반홉의비례로타서 고구마와 함께 찝니다 이것은반듯이 새로난고구마래야만합니다

이러케찌면 첫재정종이드럿스니 고구마가물러지지안코 향기가나며 무어이라고형언할수업시맛나게됩니다

〃저당서류소각회〃

미국메사쓰추의 카ㅣ빌이라는 데잇는 성피ㅣ타교회의 목사미크라가르씨는 얼마전에 그의친구들을 모아노코 「저당서류(抵當書類)」 태워버리는모임을열엇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정말서로 신용한다면 저당문서가튼것이 잇슬필요가업다는 천국의 정신에 립각한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임이과연 그목사의 뜻과가티 조혼결과를 가저올지 그것은 의문이라고합니다

유리그릇닥는데 감자가좃습니다

여름에는 유리그릇을 만히쓰는까닭에 늘 이것을 깨끗이 씨처두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유리그릇은 소금으로 문질러씨처도 조코나 계란겁질을 잘게부서서 쓰더지 감자겁질을 쓰려서 조곰 물기가잇게하야가지고 문지른다음 맑은물에 씨처버리고 물이마른다음에 마른 헌겁으로 닥거쓰도록하십시요 겁이나 기타 이상하게 생긴 유리그릇은 자칫하면 손이 밋바닥까지 닷지안는수가 잇습니다. 이러한그릇은 절가락끄테 헌겁을가머가지고 딱도록하는것이 조습니다

컵가튼것은 여러개를 한데포개놋는것이 보통인데 이러케하면 깨여질염려가잇스므로 조곰식 사이에 보드러운 조히쪼각을 한벌식까는것이조습니다.

조롱속의새도 더위에지처

모기에한테물리고식욕이안나고 …어더케하면기운을차리게할가

조그만 새들의 맑고 고운소리를듯고 잇스면 마음속이 아지못하게한가하고 화평해집니다. 조그만 새롱기튼다는것은 가정안의 공기를평화롭게하는것이요 또어린애 기네의 정서교육(情緖敎育)으로도 올흔것이라고 할수잇습니다.

그런데 요사이가치 더워노하서는 조그만 새들도 고만 더위에지처서 원기를일허버리게됩니다. 더구나 밤에모기떼가 덤비어 발가튼데를 상하기도 쉽고 또 모이와 물이 부족해서 고만 기갈로 기운을 일키도 쉽습니다. 하여튼 헐ㅅ벗이 윤태치 안코 눈이 게슴치레하고 잘울지도 안코 우두거니 잇는것은 몸이 쇠약한 증거입니다. 그러한새는 빨리 시원하게 통풍이잘 되는 처소로 옴기어노코 약을 주어야 할것입니다.

약이라야 특별한약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으로 이를테면 식보라고 할 모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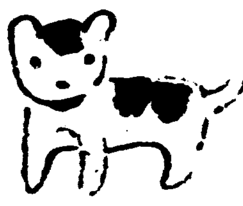
보통으로는 요사이 흔한 푸른 풀을 띄뜨다가 주는데 그것도 좋입사에 혈이 난거나 또는 쓰고 매운맛이 나는 것은 못씁니다. 배채나 시굼치가튼 채소는 몸을조습니다. 그런데 쇠약한 새에게는 결코 그런보통식사로은 되지 안할 것이니 특별한 강장제(强壯劑)를 주어야 할것 아니겟습니까? 그강장제로는 배채씨나 무씨가튼 씨갑이도 팬찬코 또지렁이가튼 버레도 팬찬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밤에는 모기가 들어오지못하도록 얇은 생사로 조롱을 더퍼주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몸이 더러운때 벼룩이가 생기는 수도 잇슨즉 벼룩이생기지 못하게 정하게도 해주러니와 생긴 벼룩은 꼿꼿 잡아주게 주의해야합니다.

그외에도 강한 햇볏이나 심한 바람마지는 다못씁니다.

長篇小說 찔레꼿 【106】

金末峰 作 / 金熊超 畵



영혼의시장(十七)

「게십니까?」

하고 또한번 불르는소리에

「누구십니까?」

하고 비로소 정순은 고개를들엇다.

스르르 문이열리면서 환ㅣ한 흰국화떨기가 먼저 방문으로 쑥 드러왓다.

국화분을안고 서잇는 경구의 얼골이 꼿가지사이에 벙그레우스며

「어제 오일열가봣조 맛츰 눈에드는게잇길래 주문을해럿니 이제 배달이되엇습니다」

하고 경구는 소리나지안케 화분을 테ㅣ블우에 올려놋코 두어번 냄새를마타본다

「오질이니깐 참지금까지 꼿이잇겟습니다만 일부러 예까지 가저다주시고 참정말……」

정순이가 고맙다는말을 채맛치기도전에

「천만에 천만에」

경구는 고개를 흔들고

「어떳습니까 국화 조와하십니까」

하고 꼿과정순을 번가라 바라보는 그는 눈이부신듯이 약간 고개를 숙여버렷다

「국화를 웨안조와해요」

하고 정순은 얼골을 꼿떨기에 파뭇어보고

「국화싫다는 사람도 세상에잇슬라구요」

하고 벙긋이 우섯스나 정순의 웃음속에는 감출수잇는 슬픔이 숨어잇고 그리고 그슬픔은 거울처럼 경구의심장에 빗최엿다 경구는 방한편에 선채로

「참정말 저번에주신 편지는감사하게보엇습니다」

「……」

한참동안 방안에는 긴장된침묵이 흐니물처럼 그들을에워쌋다

경구는 결심한듯이

「자세히 읽어습니다만 정순씨는 사랑과 우정(友情)을 구별해서 말슴하시는것갓습듸다만 전 사랑이 진화(進化)되면 우정이 되는줄압니다 진정으로우정이업는 사랑은 정순씨의 말슴과가티 신기루(蜃氣樓)가티생명이 짧은것입니다」

말끗을마친 경구의 두귀바퀴가 다는듯붉게 충혈이되엇다

「그럼 상당히 연애를만히 경험해보섯군요」

하고 정순은 또한번 쓸쓸하게 우섯다

「아ㅣ니요 그야 리론이그래지 안습니까?……정순씨 어떠생각으로 하신말슴이지 물론것습니다만 가령제가 윤희씨나 그외의 다른녀자와 결혼을하드래도 정순씨 저게대한 우정을 변치안코 영원토록 친한친구가 되여주시겟다구 하신그말슴 그것은 즉 저에게한 정순씨의 사형이라고 밋고싶습니다」

이상한긴장으로 약간 창백하여진 경구의얼굴을 드려다보는 정순은

「호호호」

웃고

「그것은 경구씨의 독단(獨斷)입니다」

하고입을 다무러버렷다

「네ㅣ 독단이라해도 할수업습니다 정순씨! 저는그러케 독단하지안코는 살수가 업스니깐요」

경구는 번개와가치 정순의한편에 입술을대엿다 밝앗케물이진칼 찰숫치럼빨아진 경구의 입술을 감각한 정순은놀라서한거름 뒤로물러섯다

「용서하세요 정순씨!」

하고 경구는 이번에는 두팔로 힘것 정순의엇개를 껴안엇다

「경구씨! 이러면 안됩니다 사랑이란건 결코 강제로되는것은 아니니깐요」

하고 정순은 힘것 경구의가슴을 떠밀어냇다

정순의 준절한음성을듯는 경구는 확근하고 얼굴이 붉어저서 두어거름 정순에게서 물러서며

「제가 강제를햇습니까?」

하고 원망과서름이 가득한눈으로 정순을 흘겨보고는 가만히 문밧그로 나가버렷다

정순은 경구가나간뒤 손수건을 대이고 테ㅣ블우에 폭구라젓다

「엇지하여 사랑을바친 남자에게서는 버림을밧고 사랑을늣기지못하는 청년은 나를이처럼 따르는고」

이윽고 정순은 부플어올은눈을 거울에비처보고 세면소로갓다

고동을틀어 물을확고섯든 정순의뒤에 사람의발소리가난다

지금막 침실에서 나온듯한 조만호씨가 치솔을 입에문채 무어라고 눈짓을하며웃고 정순의 경훈로닥어선다

허리를굽혀 공손히 인사하는 정순을보고 두취는 빙긋웃더니

「간밤에는 만히고단하셧조?」

나즈막이 한마듸하고 또다시 빙그래웃는다

「네ㅣ 별로……」

정순은 방금 물이 넘처흘러는 수도고동을막으며

「이랑반이 엇더케 지난밤에 내가 고민한것을 알엇슬까」

하고 속으로 이상스럽게 생각을하면서 밧브게 얼굴을씻고 복도로나왓다

「안선생!」

하고 뒤에서 두취의부르는소리를듯고 정순은 주춤하고 뒤를 도라보앗다

「오날저녁에 경애와가티 백화점으로 갑시다 내 셔츠좀한 선물을하나 사드릴테니」

기름이번드래한 두취의 얼굴이 정순의 귀갓가히 소군그리고지나가자 정순은 전과달른 두취의태도가약간 이상스러워 그는

「네ㅣ 감사합니다」

한마듸 인사를남기고 그대로도라서서 자기방으로왓다

「찬물에씻슨 몰이라터니 저애를두고 한말이야」

두취는 찬바람을 나려키며 뼁도라서서 가버린 정순의태도가 만족한듯이

「녀자란 그래야 쓴단말야 아이는됫서」

혼자서 고개를끄덕이고 그는오날밤 정순에게줄 선물을 맘으로 차저보앗다

「금강석반지? 아니 그보다도푸라치나 손목시게가 엇덜고경애가 가진것과 꼭가튼걸로사준다면 데조와할게라호호호」

소리를 죽여웃는 두취의 유중한엇개가 두어번들릿다

第二回 全朝鮮學生美術展覽會

▲會期 自九月十七日至廿六日

▲場所 本社大講堂에서

出品種別

中等部
▲東洋畵科
▲西洋畵科
▲工藝科 A、彫刻、工藝品 B、刺繡、編物

初等部
▲自由畵科
▲手工科

褒賞

【中等部】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副賞 五十圓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副賞 三十圓

【初等部】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副賞 二十圓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副賞 十圓

▲入選作品中에서 左記二級의入賞作品을決定하야 正賞으로賞狀을授與하는外에 또 所定의副賞이잇슴

特別褒賞(朝鮮日報社長賞) 百圓 各部各科特選作品中에서 가장優秀하다고認하는作品一點에對해서 本社社長이授與함

申請及搬入——場所는 本社事業部期日은 自九月十日 至十日間搬入할일

出品規定——本社所定의申請書指定欄에 各項을明細記入하야 作品과함께前記搬入場所定提出할것이며作品背面에도 申請書에 記入한바와가티 作品題號及作者氏名、住所、所屬學校學年別及年齡을明記할일 (規定에違反되것은不受理)

◇主催 朝鮮日報社

九月創刊號發賣中!

月刊 幼年

幼兒生活趣味에 가장適當한 것을選擇하엿스며 特히幼稚園에서使用할每月保育案等 大端有益한 雜誌입니다

定價20錢(送料2錢)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番——

朝鮮一流畵家總網羅

朝鮮서처음나오는 어린이의그림책 어린이는 누구나봐야할자미스런그림잡지!

全部五色옵세트印刷 포스타用紙一百五十斤紙四六倍版美麗한畵報

表紙 鄭玄雄 畵

어린이手工 自由畵

원두막 李香隣 畵 李軒求 文

가재새끼 洪祐伯 畵 李殷相 文

기러기 鄭玄雄 畵 尹石重 謠

전에타고다니든거 시방타고다니는것 金奎澤

여러가지새種類 崔根培 畵

공작팔작 鄭玄雄 畵

하이킹 崔根培 畵

全朝鮮幼稚園敎育者諸彦에게

朝鮮에幼稚園敎育이創始된지 이미二十五年。兒童에對한關心은 이제完全히喚起되엿다고할것입니다。그러나 지금에이르기까지 園兒들의靈魂을길러줄만한 한개의敎材畵本이업다는것은 實로 우리當務者들의等閑한일이엿고遺憾스런일이엇습니다。그리하야 恒常西洋의兒童畵本을 볼적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런것이誕生되려나하고 一種의重荷와가티늣기더니 今番에朝鮮日報社出版部로부터이事業을시작하야우리幼稚園敎育者에게 提供해주게된것을보고 우리는참으로雀躍하야말지안습니다 이미京城市內各幼稚園에서는積極協助하기로決定한바이거니와이제全朝鮮七百幼稚園이一齊히援助하야 이盛事가빗나게 發展하므로써우리保育運動界의新機軸이되게하여주시기를 敢히 바라옵니다

「그림잡지」"幼年"編輯顧問

京城保育學校長 獨孤璇
梨花保育學校學監 徐恩淑
中央保育學校副校長 車士百
朝陽幼稚園長 李康嫌
新門內幼稚園長 車載明

學藝

思想·生活에對한自省

◎ 李軒求

政治的意味―政治性―라는것은 論者가論議하기에 너무나 큰世界이매 敢히 그에부닷치라고하지는아니하나 오늘의世界文化―藝術―의現象動向이 이政治的意味를떠나 純粹한文化圈內에서만 論議할수업게되엿것은 最近數年來의文藝思潮의 傾向에서 充分히發見할수잇거니와 이政治的意味란것은 統制와抑壓을意味하는바 外部의制限을말하는것이니 藝術은 自由의産物이라는平凡하나 實로不變할眞理의一句를 기둘認識할바오늘에이르럿다

朝鮮의 文學世界에잇어서 數年前까지도 世界的文學의 動向과潮流에對하야 至大한關心을가지는形便이엿다 그러나 最近의傾向으로보면 一二三의 朝鮮作家(一例로李箱氏와가튼)의 이야기에만일이고 文學潮流에 對하야도는그룹싸고도는 情勢에對해서는 彼此가 鈍感하라하며 等閑하라하는小自我의蟄伏에끈치고만다 더욱所謂新進文學靑年들의獨善的態度란 이混濁한低氣壓에더한層不快를더한다 甚하면 文學에 殉從한다는 傲慢스러운 自瀆行爲에 빠저 바리고 만다.

野心도 純情도 볼라는慾望도업는오늘 이모든混沌과 矛盾을殘忍하게 無慈悲하게 告發하라는 精神과情熱은 오늘에 잇어서

當面의現實的課題로 必要하다고믿을것이다

그러나 果然 어떤殘忍하고도無慈悲한告發이 文學作品속에溶解되야 現實惡의 撤底한 穿鑿에일으러 階級文學의 참다운現實主義를 完成하게될것인가?는今後에기다릴일이어니와 그러나文學의 現實主義란것이 그根本的精神에잇어서 오늘의 沈滯 慢性的情緖에對한一抗辯 一熱情의發現으로써 告發의精神을 高揚할수도잇을것이나 이것을 레알리즘의 眞體요 原動力이라고하기에는 그것이 너무나生營하고 하나의 藝術으로서 生命과肉體를가지기에는 지나치게 狹隘하다

만일金氏가 告發이라는 한個의要素로서모든文學(古今을通해서)를 들때 임이白鐵氏가 모든古今名作을 人間冒瀆으로서 統一하랴는 過誤를犯한 杞憂를 느끼지아니할수업다 더군다나 氏가 말한과 가티모든것을 告發하기에는 우리의처지가 至極히狹隘하고制限되엿다는 새로운條件에 부닷칠것이다 이에對하야 그러한까닭으로 우리는 偉大한 諷刺的精神을 가저야하겟다 할는지모르지마는 이諷刺的精神이야말로 이러케貧弱한 雰圍氣에서 許生員(春園의許生傳)과 가튼性格을 차저내기에도 너무나 균색하고 貧弱하다는것을 느끼다 그러면 그대는 어떠한 文學精神을 가저야한다는것이냐?하는

反問이 잇을것을 豫期한다 自省하야 머리를숙이어는外에 率直한 態度가업을것이나 하나의 잇어진 열매를찾기前에于先 하나의 피는꽃을 가구는바 誠意와 努力이잇서야할것이다.

『궤―테』가『루소오』를『유고오』가『沙翁』을『보―들레―르』가『포오』를『스탕달』이『도스토이엡스키』를『롱랑』이『베―토벤』을『바르뷰스』가『졸라』를 그精神的스승으로 밧드는바 이모든文學的史實로 말미아마 더무나지나치는偉大한精神의傾倒때문에自己自身에對한 態度를拋棄하는바危險까지를 가지는作家的苦惱가 업는곳에 우리의眞正한文學은 커지고 세워질수업는것이다 그러타고해서 모든新進作家는 모름직이 울려서라! 고함이아니다 어디나 이러한努力이 繼承되지안는날 다시 일어지는作品은 어줄수업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더冷靜히 文學的雰圍氣!豊富한 敎養으로서의 思想的肉體를 釀成하지안는다면 文章을쓰는까닭에 그것이 文學이된다는 下向的現象을 보는以外에아모것도 얻을것이다 더군다나 모든文化方面에 잇서서 가까운影響되 地域만을보는 近視眼者뿐이요 더큰 더기프그 根源에 溯究하야 어드랴는努力과傾向이 委縮되여간다는것은實로 寒心스러운일이 아닐수업다 依託하라는 歷史的性格이

形成되는 그根底에 누은바 그하나―『스츄아―드·밀』그는 말햇다『滿足한 도야지가되기보담은 獄에가친『소크라테스』가되라!』조개껍질속에서도바다를듯는바 넓은胸衿이 잇는곳에 思想은 비로소 깃드려살지고 커질수잇스며 그리함에서 우리스사로가 急所難關을 克服하야 이에서 解放될수 잇는것이다 (了)

―八月十八日―

漢詩

題芳草 押生

佳作

咸南永興郡德興面興達里 金文厚

平蕪十里雨初晴
無限東風盡吐萌
陰崖陽谷同春意
要路閒門不世情
王孫舊恨年年綠
客子新愁日日生
踏復還避繞更長
秦原楚岸摠繁榮

第三回 全朝鮮男女音樂콩쿨

開催期日 九月下旬 申請期日 九月五日까지

參加資格 全朝鮮男女로하되 聲樂은 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 申請金二圓과 伴奏料一圓을 申請書와함께 本社庶務部로 交附함 (但 한번 申請한뒤에는 申請金을 一切返還치아니함)

表彰 入賞된분에게는 本社로부터 콩쿨賞金을 授與함

曲目 二曲을演奏하되 一曲은 本會指定曲을取하고 一曲은隨意로함

【聲樂】 DER WANDERER (放浪者) ―슈벨트―(男聲) / AVE MARIA (아베·마리아)―슈벨트―(女聲)

【피아노】 IMPROMPTU (卽興曲) NO.4 (作品九〇)―슈벨트

【바이올린】 CONCERTO (協奏曲) NO.6 (BF LA MAJOR) 第一樂章―로―데

【審査員】 金永煥·洪蘭坡 朴慶浩·玄濟明 桂貞植·金元福 鄭勳謨·朴泰俊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東海日記

(三) 八月×日―於群仙港 李燦

列車有物制限으로 ○組合에에써 돌고간것을 記錄하고 言語그대로 등을에 물처럼 흐르는 땅도드림겸 靑龍에 올릿다. 頂上에 이르자 드리러든말은 어되로 雲散하고 싸― 거센海風 올녀칠때마다 옷속 몸시소리처 집이우수웟다. 靑龍은 群仙의南山이다. 이름그대로 南으로안저 一眸에群仙港을 瞰瞰하고잇다.

넓다. 푸르다. 배도 하나둘 헐만큼밧게 안된다. 右岸에 몃개 新設工事中의 工場이뵈일뿐 우뚝한 굴뚝에서 싸나오는 黑烟도 드믈다. 群仙은 아즉도 處女港이다. 눈을 드러 멀니 對岸에 노으니 누가 明沙十里가 元山에잇다하엿든요. 아득히 白蛇가티 구비저은 하이헌 白沙場에 파아란松林이 띄가티 둘너잇다. 꿋흔 점점 아득하다 水平線에 녹어버렷다. 익히바라보매 간혹 松林을 새여 리즘이칼한 白線이 낫타나믄 어떤風流浪의 興겨운 野遊인고. 구름한점업는 해맑은大空엔 이따금 白鷗가 훨……。

夕飯後 勸하는대로『유가다』를 걸치고 나서니 벼거리 한복판에 人山人海다. 가끼히 갈수록 그속에서 울녀오는 애절한 쌍노래人소리 음산하니 찌프린 하늘과아울너 멋업시마음을 무겁게하엿다. 쑥스럽음 무릅쓰고 다아서니 어이뚱하엿스라 열여섯일곱의 에쁘장한 계집아이 시앗시휘저고리에 자지스치마로 건드리는듯마는듯 장기를 들고안고 그거레 한두어살 어려뵈는 중대가리 사내아이 맨발고무신에 고구라양복으로서 연해 손수건으로 이마를 다으며 무엇이가 구슬픈 歌調를 合唱하고잇다. 港口에서 港口로 흘는 男妹 父母업는 나어린歌人! 巴里의집웅밋을 울니는 歌師는 그들파리짜의 官能을煽動하고 우슴과 기쁨을 짜낼지모르나 나는 한참 듯다 눈앞이 暗黑하야 貧弱한 주머니를털려 一金몇푼을 던지고 뭇기듯 거름을재촉하야 松林으로 드러섯다. 비내려도 안새일듯. 엉크러진 가지·가지. 그미테 어둠에서도 파아란 잔디 깔니고 군데군데 이름모를 들꼿이 爛漫히 되여잇다. 가도가도 松林·松林. 가도가도 잔디잔디. 누가 버렷는가 짤지진 거적한개를 끄으려다 안즈니 눈압 하이헌 砂場에 물결이 차낭 찰낭 기여드러 부딧고 등뒤 개울넘어 논두덕에서 우러대는 개구리와 범베人소리 뿐사방은 죽은듯이 고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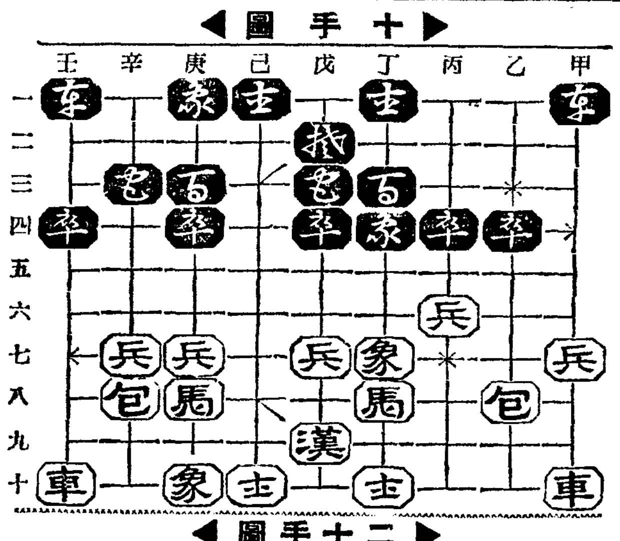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二)

漢 李在鳳 楚手先 許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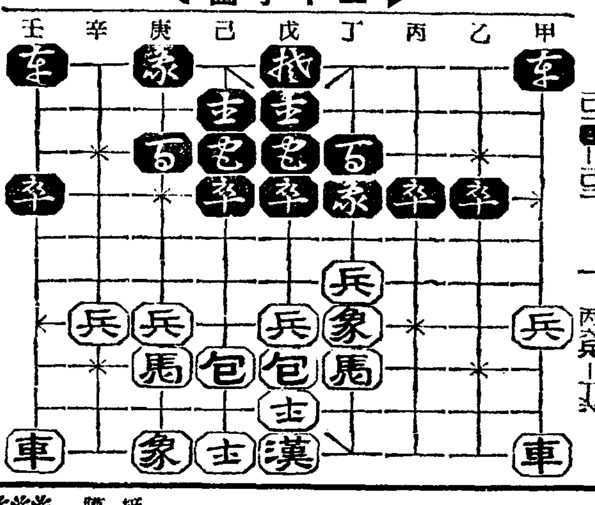
庚四―己四
乙六包―戊六
辛三―己三
戊九漢―戊十
己二―己三

丁十士―戊九
戊三―戊一
辛八包―己八
丁二―戊二
丙六兵―丁六

◀十手圖▶



◀十二手圖▶



海·岸·線·行·脚……⑳

甘山川의溪谷美

―猊來、加來、法井의名義―

李殷相

山房山 가튼 海岸線의 小峰崗들을 은어느것을 排論하고 火山의噴殺되者라 岩色은 비록 검을지로되 形相은 저절로 奇觀을 이루엇다.

그러나 山房山이 꽝지를떼면서는 亂石荒田에 눈이 도리어 아플뿐이다. 다가튼 돌과바위도 세워다르고 뉘어다르다。여기에 잇는 돌이 꼭가튼 玄武岩이오 꼭가튼 不定形이로되 하늘을 찌를뜻이 겹노히고 고추서서 山이되어 우뚝할때엔 그가튼 奇觀美觀이 다시업더니, 바언덕 길바다에 굴리고 허터저서 어지러이 널리고보매 이가튼殺風景이 되는것이다.

아름다운 景觀을 齊齊하게도 보이시던 造化翁은 底下의 殺風景도 오래보이지 아니하시어 문득 奚常치 아니한 溪谷의 끄트머리를 넌짓이 보이신다。

溪谷은 길을따라 가치오르는데 어디서부터 보엿던지도 깨닷지못하는사이 문득보매 끔작이 두어덕에 떠올듯이 鬱蒼한 소나무 잣나무 의갈나무들이 寸土의 붉은빛을 容許하지아니하고 저마다 크려고 굵으려고 욱어지려고,말업시 다투는통에 푸를수잇는데까지 푸르고 빽수업도록 얽히것은 實로 길에서 엿사리 만나는것이 意外이닐수업고 意外이기때문에 더한층 고마운 생각이든다。

우리는 車를 세우고 쿵쿼 찍을듯 뛰여나려 어딘지도 물을 사이업시 끔작이를 向하여다름질을 친다。

여기까지 오는동안 그 흥만흔 조약돌로 막고막엿던 두귀가 문득울리는, 물소리에터지듯이 열리고 좁은車속에끼어안저 八字에업는 全身不遂病者노릇을 하던몸뚱이가 夕陽에 그늘진 洞府안으로 사숨이 부끄럽도록 뛰어들어가는것은 行하는이업는 異常일수밧게업다。

翠天이라 물은그리 만치못하나 溪流이 坦平치 아니하매 뛰어오르고 뛰어나리는수박게업슴은 잠깐인채로 深山幽谷의맛을 보게함이못하다。

얼마쯤 걸어가다가 큰끔작이를 그대로 버려두고 왼편으로 狹路를 떠들어 들어가니 다시 다른끔작이가 빈틈없큰끔작이와맛을보러 터지는데 幽邃한맛과 樹林의 香氣가 마치 마루에 섯다가 尖峰으로 한 內室로 들어가는듯하다。

여기만해도 벌서 한구비 두구비한데, 이구비 또한구비 들어가서는 시냇바다이 一段을 오르게 되어이고 그구비 다시한구비 돌아들어긴 그속은 어디까지나 뚤렷는지 모르겟다。

岩壁에는 이성의 特色잇는 蘚苔植物이 全面에 깔리엇고 두간두간 異様의 鈴蘭이 매어달렷다。

꿋업는 끔작이를 더듬다가는모처럼어든 사람의 몸뚱이도 神仙길숭屬가 잇스니 그만하고 돌아서자하야 우리는 한번들어온길을 바로 눈의은 溪山처럼 막대로 바위를치며 차저나온다。

이가리 凡常치 아니한溪谷은甘山川。源은 漢拏山이라하나、河床이 커지고 살진물이 흐르기로는 北으로 加加岳洞을 지나면서부터다。

이甘山川은 柑山川이라고도 쓰고、地圖에는 倉庫川이라 表示되엿는데 俗에 이르기로는 安德川이라하거니와 名稱은如何間에 南流溪谷으로는 島中에서 屈指하는곳이다。

溪谷밧그로 거이다나와、나오다말고 돌아서는뜻은, 못닛는 님이라 가다말고돌려다보는情과 다름것이 업거니와, 눈만 그러하지 아니하고 입이마저 다문대로 잇슬수업다하야 노래한두章을 부르러하매 나도 또한 그대로 두는것이다。

甘山川 나린물이
들스록 기픈물이
솔사이 푸른물이
꺽기어 굽은물이
돌아서 나오다말고
되돌려다 보는물이。

가다가 안젓다가
옥으숩 바라보다
섯다가 또가다가
새소리에 醉하다가
夕陽에 興치며나오다가
오도가도 못하노라。

路上으로 도로나와 溪谷이 흘러나린 아랫녁에 외편으로 바라보이는 翠林一帶는 月羅峰인것을 指顧하면서 우리는 다시車에올랏다。

가다가 길아래로 猊來村은 母論『올』의譯稱이겟는데 記錄을據하면 王子墓가잇다햇스나 王子가 누군지는 分明치안코 加來村은 亦是『올』의 對稱이겟는데 毛羅國宮闕遺址가잇다고하나 證考할길은업다。

또한 멀리 北으로 보이는 法井岳은 本是『볼』이라부르던것을 佛敎의손이들어와 近似音으로 改作한것이겟는데, 이近處에 와서 『올』『볼』『볼』等三國神域의 名稱을다시한번 만나게됨은 實로 窮谷逆旅의感이난다。

『良乙』과 『猊來』는 가튼 『올』이오、『高乙』과 『加來』는 가튼 『볼』이오、『夫乙』과 『法井』은 가튼 『볼』임은 이제瞭然히 알겟거니와 다만 法井은 저기 法華寺가 생기면서『볼』의近似音으로讀렷씨운 이름일다름이다。

法華寺의 저녁鐘소리가 하마나 들리려니하고 구름속에 귀를보낸채로 지나간다。

(사진은 甘山川溪谷)

家庭醫學

肋膜炎에서肺結核에!

肺患의約四分의一은 肋膜炎에서移行
肋膜患者의半分은二年以內에肺結核

肋膜이라는것은肋骨의內側에肺를全體를싸고잇는二重의膜으로서 그二重의膜間에炎症을일으키고、或은 물(滲出液)이생기든지하는것이肋膜炎입니다。前者의炎症만을乾性肋膜炎、後者의물이고이는것을濕性肋膜炎이라고불으고잇습니다혼히普通사람은、濕性인것은 結核性이안이라고하는이가잇지마는、그러한것은

極히數少의경우로서

大槪는滲出液中에結核菌이證明됩니다。

따라서肋膜炎은乾性濕性에不拘하고거운大部分이結核性으로 보아도팬치안흐며、그證據로는 肋膜炎에걸인이가肺結核이되는患者가만흔것입니다。

函館療養所의伊藤博士의調査에 依하면 同療養所에잇서서患者 七百九十五名中肋膜炎을經過한者百八十名으로 全體의 約二十三%에當하는 高率을보이고 잇스며게다가 이百八十名中에서 八十名의死亡者를 내고잇습니다。

如斯히 肋膜炎과 結核과는密接한 關係가잇지마는、다음에肋膜炎經過者가 가장만히結核發病을 만히케하되는것은 어느때냐하면

一年以內에發病

한者가 約三%年로가장만흐며、爾後三年까지의사이에 그半分은 肺結核이되고、五年以後에도 또한二五%쯤은 結核에걸입니다。

그래서 肋膜炎經過者는瞻年으로부터 三年가량동안은 結核에 對한 充分한 注意를 하는것이 必要하며、過激한 運動을 禁하고 感氣와 胃腸病을警戒해서、抵抗力의 增强에 努力할것입니다。

그런대 肋膜炎에 걸이면 별서 肋膜에 結核性滲出液에 가 잇슬지라도 토막의 滲出液에 가려저서 醫師도잘모르는 경우가 만히잇는故로 될수잇는대로早速히 이病變을 發見하야 加療에도 一層注意를하지안흐면 안됩니다마는 여기에 肋膜炎後의 經過를良好히하고 거다가 結核의治療를 促進하는데 適當한藥이잇습니다。

一般으로 胃腸榮養의 藥으로서 알여저잇는『錠劑わかもと』로서 이藥에는 胃腸을비롯하야

全身의衰弱細胞

에作用해서 機能을 活潑히하는 十數種의 酵素及全身榮養을 佳良케하는 脂肪、蛋白아미노酸、칼슘等의 榮養素와 其他리파―제라고해서 結核菌의被膜을 溶解하는成分、누구레인이라고해서 白血球를 增殖하는成分、新陳代謝를盛히하는 비타민B等의 成分도 豊富히含有해잇습니다。따라서 榮養이充實하야 體力、抵抗力을强케하고 또病原菌에 對해서는 이것을죽이는 溶菌等의作用도잇는故로 結核의進行을防止하고 治療를促進하기때문에 여러가지 效果가 期待되고잇습니다。特히普通人이라도 榮養이衰하고 抵抗力이 減退키쉬운 요지음、肋膜、結核患者에 한가지 勸하고 십흔藥劑입니다。

夏―衰弱을重케하는 結核患者의食慾不振

☆食慾이自然히나게하는微生物의發見

잘먹는病人은 速하낫는다고―하는것은 結核療養에經驗잇는醫師가習慣하는말입니다。잘먹는다는것은即食慾의 活潑을意味 하는것으로서 하로세끼의

食事를맛잇게攝取하면榮養도自然充實해서病勢도차차恢復하게됩니다 그런대炎暑、甚한요지음은 普通사람도食慾이減退하지마는 特히結核患者는結核、結核菌毒素의刺戟及新陳代謝의 異常으로 一層消化吸收機能이 不活潑히되고 食慾이減退됩니다。

그까닭에 榮養分의攝取가不足해서 病을進行케하고 或은衰弱으로 他病을併發하는危險이 잇는故로 여름의結核患者는 될수잇는대로 胃腸機能을 皷舞하고 食慾을 喚起하도록 圖謀하심이 必要합니다 以前은 이러한경우에는 지아스타―제其他의消化劑或은苦味劑等을주어서 胃腸機能을

◇…**補助**하고 或은消化液의分泌를促進하는方法이行하여지고잇섯는대

이러한것은結局 一時的作用에 不過하고 더구나結核患者의食慾不振은 菌毒素의 作用에基하는것인故로 이러한對症療法만으로는 障碍를 除去치못함니다。

이것을 治療함에는 結核이나 胃腸에有效한 藥이아니면 안됨니다마는 그目的에 適合한藥으로 最近에―쐐라고하는 微生物을 活性그대로 藥劑로한 『錠劑わかもと』의服用이主로推賞되고잇습니다

이藥에는人體內에서 分泌하는消化液의活動을도읍고 同時에結核菌毒素때문에 탈이난胃腸細胞를 强化하는酵素와 호르몬等이 豐富히含有해잇서서 生理的으로消化를促進하고 食慾을喚起합니다 그리고一方으로는 結核菌의毒素를溶解하는成分이 全身細胞에賦活해서機能을活潑히하고特히白血球를增殖하는等의 作用도잇서서 結核에對해서도 積極的의治療作用이잇습니다。 그런故로 在來의 對症藥으로 特別한

◇…**效果**를어듬지못한結核患者는이 藥을 服用해보시는 것이 必要하며 이에 依하야 結核의 症狀이 輕快해서胃腸機能이 活潑히活動하는結果 自然히 食慾이 나아가는분이만습니다。 食慾의如何가 重大한役割을가진 結核患者에 잇서서療養上新生面이 開拓된것이라고할수잇습니다

이『錠劑わかもと』는 東京芝公園入門側わかもと本舖榮養と育兒の會 (振替東京一七〇〇番) 에서 三百錠入、千錠入의二種이 一日分錢、五六錢(小兒에는二三錢)의 廉價로 發賣하고잇습니다。

結核菌의發見者コッホ

微熱이업서지고 ―肋膜炎이輕快―

(新潟) 羽根木濱子

나는아해쩍부터 거운病이라고알은 일이업고언제나健康하야 粪은먹어본일이업섯습니다。 그러든것이 一昨年春어쩌다결인感氣가 도모지 낫지안어서 午後가되면 몸이대단히느른하고 食慾도업서서 어듸가 病이잇는것이 안인가 생각하면서도 지금까지 튼튼햇섯스니 그리關心치안코 잇섯습니다。 그러는 中가슴이압흠으로 처음으로 醫師의診察을 바든직 肋膜炎이라고하며 좀는저젓다고함니다、그것이 一昨年六月이엿습니다。一個年쯤醫師의加療를밧고 危險期는버서나게되엿지마는 濕刺한初夏에도 저녁때가되면 嫌症이 나는 七度一二分의微熱이낫섯습니다。發病以來두번째의 여름을마지하고 나는 自棄自棄하게되엿습니다、問病온두님의게『錠劑わかもと』가 肋膜炎에조타는말을듯고 早速히사서 熱心히服用해보직 그러케도 執拗한微熱도 次第로업서지고 지금은 그前의健康을 恢復하고 發病以來一年만에 感謝에넘치는每日을 보내게되엿습니다。

にきびとり美顏水

여드름 업새는

부르틈에는반듯이이藥

여드름 부르틈에 大端히效果가잇슴으로 大好評을밧는藥이다

美容藥으로서도

入浴後나 洗顔等에使用하면 實로 爽快하고 여드름 부르틈을 防止하며 얼골이 아주 어여뿌게 된다

벼룩,모기,빈대에 물려 가려운때에

벼룩、모기、빈대、전댁이其他毒虫에물려 가려운때에 바르면은 大端히 조흐며 이藥을 家庭에 한병식만 常備하여도 重寶가되다

기름끼는얼골

アブラ顔의化粧下에는……第一等!

獨特한 美容成分作用으로 汗腺이나 脂肪腺을緊縮식히고 땀과 기름의 分泌量調節함으로 어떠한기름이 흐르는얼골에라도 白粉이 마음대로 어여뿌게 밝나지며 化粧이 오래오래 지랑하게된다

▲본바탕얼골에도美를 낫타내는대는第一等

化粧用美顏水

趣味娛樂

詩人舞姬 『라·메리』孃來演

詩人舞姬『라·메리』孃이 印度『킨쓰』에서 發見한『파-도나-』의『랑파로』氏와 가티 九月初旬에 訪日의 途上에 오르기로되엿다。

『라·메리』孃은 米國出生으로 『콜럼비아』大學을 卒業하고 詩집도 數冊이나 出版하엿다 數年來 伊太利에 살면서 日本舞踊을 배워가지고『라라쏘프』『부오리닝』『상카-』等의 巨匠들에게 師事해서 스페인 멕시코 印度 支那各國의 춤을 추게되엿다。

昨年秋 론돈의『사부오이』劇場에서 二十日間連續公演의記錄을짓고 世界一週公演에 出發해서 濠洲 뉴-지란드 印度 마니라等을 經由해서 마친내 日本의 땅을 밟게되엿는데 九月十六日을 初日로해서 數日間續으로 日比谷公會堂에서 五日間公演을하고 橫濱 名古屋 京都 神戶로 巡演하면서 一個月滯在하리라한다 伴奏는全部가지고온 레코-드로하겟다는데 舞踊과舞踊사이가 約二分間바게 안되는 短時間임으로 急템포로 變해가는舞踊을 보히는이것 彼女의 特徵이라고한다。(寫眞은 라·메리-孃)

라듸오

二十一日(土曜)

◇午後六時三〇分 童謠와唱歌 一、齊唱 구름 二、齊唱 눈、꼿、새 三、獨唱 기차가달아오네 四、齊唱 누가누가잠자나 五、獨唱 고향하늘 六、齊唱 참대배 七、獨唱 물방아 八、齊唱 달마중 九、獨唱 월게꼿 十、齊唱 그떡그떡 十一、獨唱 엄마생각 十二、齊唱 웃음웃을때 十三、齊唱 동대 … 어린이會 指揮 金容順 伴奏 金信德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講演『植物과傳說』 李德鳳

◇同八時 趣味講演『納涼天文』

◇同八時三〇分 古談『風神』 車青吾

◇同八時五五分 伽倻琴倂唱 一、短歌 竹杖芒鞋 二、唱劇 泛彼中流 李素香 韓成俊

◇同九時一五分 『前赤壁賦』 杖鼓 誦 娘子

第一放送

◇午後六時三〇分(大) 童話劇

◇同七時三〇分(東) 반도네온獨奏

◇同七時〇分 新(名) 歌劇

◇同八時五分(東) 草山 歌舞卷

◇同八時三五分(東) 國民謠

◇同九時五分(城) 歌

二十二日(日曜)

◇午後〇時五〇分 唱劇調『春香傳中新官到任하는데』 朝鮮聲樂研究會員

◇同六時三〇分 兒童劇『맹꽁이의울음』 兒童劇研究協會

◇同六時五五分 修養講話

◇同八時 流行歌 一、記憶의노래 二、山間處女 三、春夢 四、國境의밤 五、靑春打鈴 權相老 張城月 伴奏 DK管絃團

◇同八時三〇分 歌曲 一、界面 二、弄 三、羽樂 四、編樂 歌 金明仙 權花谷 大笒 金永根 杖鼓 洋琴 一相淳 金

◇同八時四〇分 라디오코메듸 人生後哨兵 全二幕中第一幕 (配役) 全영러리…太乙民 풍선이…沈影 金玉順…韓銀珍 李主事…流暎植 萬福…李淑玄 乙成…尹一淳 에피로-그…南宮仙 劇團中央舞臺

◇同九時一〇分(平) 西道歌謠 朴明花 滿洲效果 延樂 鄭超年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滿洲洋樂

◇同一時二〇分(東) 漫才

◇同六時三〇分(東) 名作物語

◇同七時三〇分(東) 國民歌謠

◇同七時四〇分(大) 日曜演藝

◇同八時一〇分(東) 浪花節

◇同八時四五分(大) 歌謠物語

二十三日(月曜)

◇午前一〇時三〇分 料理製法『보리밥』

◇同一一時一五分 家庭時間『시연한料理몃가지』(一)

◇午後〇時五分 一、새타령 二、三、城主푸리 鄭順媛

◇同六時三〇分 地理이야기『北支와萬里長城』 金道泰 伽倻琴 大笒 玄琴 杖鼓 朴鍾基 申快童 吳太石 丁元燮 奏

◇同七時 夏期라디오大學

◇同七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八時 農村講座(二)『經濟篇』 徐椿

◇同八時三〇分 軍歌工夫『日本서할수잇는제철農産加工』(二) 金雄珠

◇同八時四〇分 獨唱 一、예루살렘 二、어둔무덤에서 三、스렁카、라 四、棕櫚나무 五、이저버린곡조 六、뽘카의배노래 (露西亞民謠) 指導 李鍾泰 鈴木合唱團

◇同九時五分(平) 피아노伴奏 金在昌 李容俊 一、양산도 二、중타령 三、사랑가 四、동등타령 五、箕城八景歌 六、봉죽타령 金周鎬 崔明仙

納涼區의 外人部隊 2

"장이야! 군이야!" 병문깐의 尙武精神

『棋局消長夏』는 녯말에도 잇스니까 高樓巨閣에서 三重簾高게걸고 남미선 부처가면서 落子丁丁하는 雅華版도잇슬테지마는 우선 손쉬운데로 鍾路병문으로 잡어드럿다。

택시니 닷드선이니 하는 것들이時代의 寵兒가되는바람에 인제는 敗殘兵과가튼 人力車가 期限업는 待機狀態를持續하고잇다。이러한 閑日月이니까 木枕을 도두비고南柯夢을 질기느니도 잇지마는 綺羅星벌니드시 車包象馬를 느러노코「장이야 군이야」하는 鬪熱法도 잇는것이다。

한쪽에서 密集部隊로 攻勢를取하면 한쪽에서는 散兵戰으로 堅忍한 守勢를取하면서도 寒変의 間隙만잇스면 一擧에 敵의牙城을攻迫할드시 虎視耽耽하는 形勢는 그야말로 龍虎相搏의 伯仲을 다투면서도 엇전지 局面에는 不久에 一大風雲을 捲起하고야말 一抹의殺氣가 돌고잇다。

果然 楚軍의 飛包와 走車가 어느틈에인가 敵의堅陣을뚤고드러가 左衛右突을 하더니 形勢는 一轉하야漢軍의 蕭條한 殘營이 자못 落月寒霜의感을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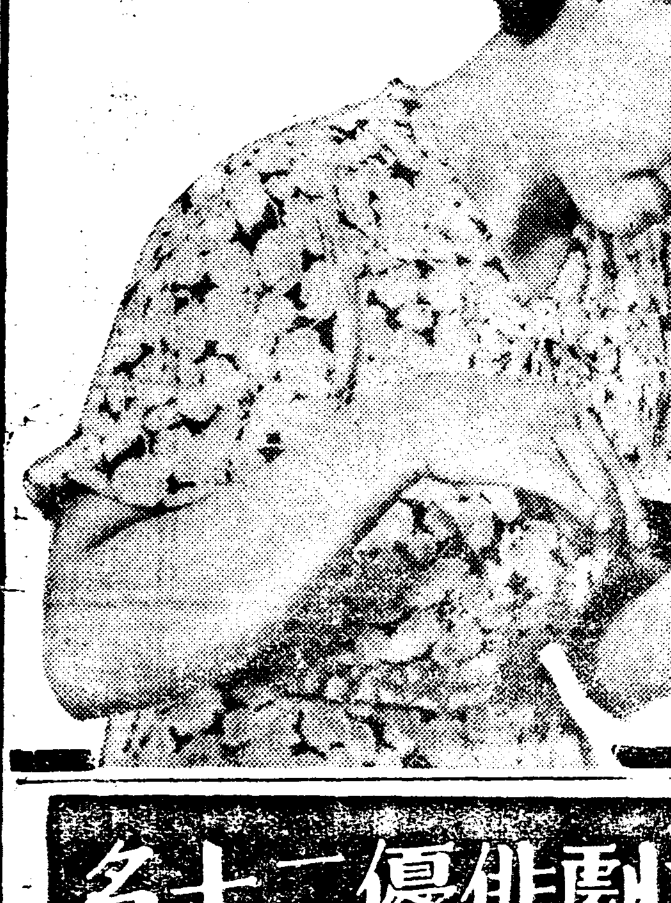
이러는동안에도 人力車를 부르는손님은 하나도 보히지 아니하니 街路樹의사귀도 움직이지안는 이더위에 人力車를 타고선을 다니고십흔 생각이 엇지나리요마는 그래도한판두고는 사방을둘레둘레 살펴보는것은 어듸서 혹시나 손짓이나 하지안나를 기두리는모양이나 그期待가 억으러지고나면

『또한판하세』

『하다뿐이여!』

挑戰과應戰이 다함께 氣高萬丈하니 이번版局은 어듸로 도라갈는지?

局勢가 대마루판에 이르면 勝者나 敗者가 다함께 구슬가튼땀을 뻘뻘흘니면서도 장기를 두는동안에는더위를 모른다니 尙武의精神이란 果然 놀나운것이다。



여드름·죽은깨를一掃식히는 變用化粧水

風鳥チーゼル

치-제루

春春을좋아하는여드름 죽은깨를根本的으로 治療하야살결을아름답게하는鳳鳥치-제루는 藥草의精을科學的으로摘出하고他의高貴美素를加味配合한藥用化粧水입니다 벗꺼풀·살거칠어 집을前부히 곳처서죽은皮膚를 生生하게합니다 또毒虫에쏘이엿슬때에한방울만 발러두시면 가려움이업서지고험이 생기지안습니다

30전 50전

お肌を根本から若返らす
(살결을 부터 젊게하는)

皮膚清掃の藥用化粧水
(皮膚의)

全國百貨店·有名化粧品店·藥局에잇슴 大阪·ダンゴドーラン舖 株式會社 宇津木之助商會·東京

日支는戰爭할가?

開戰準備下의支那의全貌 — 李靑山

朝光

九月號 定價四十錢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番

北支事變卷頭言

金剛山案內者座談會

朝鮮文學의再建方策

質的向上의努力…李軒求
古典에의歸還…金南天
特殊事情과發展性…韓仁澤
時代的自覺과反省…李源朝

文壇放送祭

(新秋의文壇人이總登場하여各其才能을競爭한趣味讀物)

各界人士의飮酒量·世界小新聞
各界人士의喫煙量·笑話
各界人士의眼鏡度數·漫畵
各界人士의몸의흠·米國雜誌部數
各界人士의散步路·處世訓
映畵·演劇界消息·신드바드奇譚

□朝鮮名弓이야기…申鼎言
□朝鮮三海傳說…靑吾
□咸孝代命…玄哲
□말코니의死…一舟生
□文益漸…翠雲
□音樂手帖…任東爀

作家와評論家

人格尊重批評을待望…李泰俊
哲學的作品을企待…申南徹
作家評家는有機的…李箕永
作家와評家의差…朴英熙

文學과哲學 李雲谷

爆笑放談座談會

出席人士… 車相瓚 秋岡 申鼎言 本社側二人

隨筆 無功德 李殷相
隨筆 車中落書 李一
隨筆 私唄 白信愛
隨筆 가을風景 李孝石

九月의詩歌

西天의月…金珖燮
金剛斷章…玄仁圭
밤風景…盧子泳
空虛…광섭
茶房…金光均

故土山河에感激 徐貞玉

(나서卄四年만에도라온徐貞玉孃이본朝鮮의印象)

그庭園·그住宅風景

生物學者 李甲洙氏庭園風景
音樂家 桂貞植氏의庭園
語學者 崔鉉培氏의住宅
醫博 吳漢泳氏의庭園
한글學者 李克魯氏의庭園
史學家 李瑄根氏의家庭

近代建築藝術 洪胤植

고리키-의藝術 高一望

來訪하는音樂家 스키파·띨몬테·폴로·갈사스·티보

男女演劇俳優二十名 寫眞帖(附年齡原籍地)

趣味·讀書傾向等調査記

스케취 都會의一日 徐光霽
短篇小說 無性格者 崔明翊
中篇小說 夜宿 姜鷺鄕
戲曲 初戀記 李曙鄕
探偵小說 寶石 故金裕貞
怪奇小說 狂想詩人 金來成
長篇小說 川邊風景 朴泰遠
長篇小說 無風地帶 咸大勳

라듸오音樂批判 金管

中部版

제籠中鳥身勢免코저 네少女를誘引賣喫
"카페"에就職시켜준다고各地酒肆에팔어
自繩自縛한一妓生의罪狀

【開城】순진한처녀들을 꼬혀다 팔어 자기의몸값을 갑허가지고 롱중조가된 자기는청천백일의몸으로 해방되려다 고만경찰의그물에걸린 유괴마인 녀성—본적을부내대화정(大和町)일백삼십사번지에두고 방금목포부 보정이정목(木浦府寶町二丁目)삼번지태화루(泰華樓)에몸을팔려 기녀로 우슴을파는 리원봉(李元鳳)(二二)이란여자는 지난흥럭이월경대화정 일백삼십사번지 리상억(李相億)의장녀 순임(順任)(一六)에게 월수입 근백원가량생기는『카ー페』가 새로낫스니 희망자가잇스면 구해달라고、편지를햇든바 그후전기순임은 자기동무인 경정(京町)오백륙십구번지의 일호에사는 설동식(薛東植)의삼녀 혜경(惠景)(一九)에게 이사실을말하자 혜경은다시 자기동무인 가튼정일백오번지사는 임창림(任昌林)(一七)과 또는 삼백구십번지 김순임(金順任)(一七) 량옥희(梁玉姬)(一七)(全部假名)에게이말을전하자백원수입이란 감언리설에허영이달든그들은모다가처가기로 결정하얏다 그리자 원봉의 모진되는 권부귀(權富貴)는 지난삼월경 네처녀를 데불고경성으로가서 자기딸에게 맛첫든바 원봉은 즉시 이들을 또꾀여가지고 군산(群山)방면으로갑고기서 모소개조합에 김금해두고 전기임창임은 김점순(金點順)이란 가명으로 김제군 김제역전(金堤郡金堤驛前)이견려관(二見旅館)고녀로 백여원에 팔고 혜경은 리영자(李英子)란가명으로 충청남도 서천군 마동면 산서리(忠淸南道舒川郡馬東面山西里) 김사룡(金士龍)의주점에백원 그다음 김순임『량옥희』등은 군산부강호정(群山府江戶町)모음식점에 각각오십원식받고팔어서 이들을모다마의구렁에 한평생에 쓰러너은후 몸갑스로바든 삼백원으로 자기는 전차금(前借金)을 갑고 롱중조의 신세를 면하려햇든바 지난십칠일이사실이 개성서에 탐지되여전기원봉을 군산서로체포압래하야다가 엄중취조중이라한다

군것질에팔려 眼鏡으로詐欺

【開城】현주를 평산군평산면산성리(平山郡平山面山城里)일백이십삼번지에두 리근필(李根弼)(二七)이란"롱펜"소년은 지난십오일 개성에와가지고 그부내서본정(西本町)통을 배회하다가 지정필(?) 하창옥(河昌玉)(二三)이란 사람을맛나 시가불과 오십전에 불과한 안경을가지고 고려시대의 돌안경이라 속혀가지고 삼원오십전에 팔어 군것질을하다가 경찰에 피체되엿다

60餘同業組合에 暴利取締의自覺通牒
仁川商工會議所에서注意喚起

【仁川】폭리취체령이 일단발표되자 각방면을통하야 그취체에 몰두하고잇다함은 기보한바와갓거니와 근일에는이를 더욱더엄중히하야 심지어기미(期米)장의 당중한(當中限)의 신규매매를금지하야 대해합(大解合)을 단행하는등 점차엄중히하고 잇다함은 일반이 주지하는바와 갓거니와 이외동시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인천부내에잇는 륙십여동업조합에 대하야 폭리취체지각을 통첩하야 이에대한주의를 환기케 하고잇다한다

理髮料金獻納
公休日에도不休

【水原】수원리발업조합(水原理髮業組合)에서는 지난십칠일이공휴일(公休日)인데 각리발소주인들은 휴업을아니하고 각각자신이 업무에종사하야 그날소득액전부를국방헌금으로 납부하게다고 고열을무릅쓰고 업무에종사하는것을본 일반은 칭송이지자하며 룡주사(龍珠寺)각말사에서도 일금삼백원사십전을 수원군청에 보내면서 국방헌금의 대리수속을 하여달라고하엿다

派遣艦隊爲해救恤金

【仁川】북지사변은 마침내남방으로㈜터서 작금상해에서는 시가전까지 전개되고잇는데 해군현회인천지부에서는 상해파견한 대구휼금을 모집중이라는데 지난이십사일까지 모집된것은 다음과가다하며 그중에도 금곡정(金谷町) 리규동(李圭東)녀사는 인천부사회과를 방문하고 자기는 독신으로 후구할길이 업지는안흐나 방금전지에서 분투하고잇는 병사들을 생각하여 그대로잇슬수업서 적으나마 현금삼원을내인다하고 내노하서 계원으로하야금 감격에 넘치게하얏다한다

▲海軍協會仁川支部百圓 ▲仁川貿易組三十圓 ▲龍岡町四十八圓 ▲山手町增井久吉 二圓 ▲大和町四十二圓九十五錢 ▲立折町百三十三圓五十錢 ▲花水町百十七圓十六錢 ▲松峴町六十五圓二十一錢 ▲龍雲町四十一圓三十九錢 ▲月尾町百六圓二十六錢 ▲西京町五十九圓七十錢 ▲金谷町九十圓九錢

업서지는말『센징』
非常時局에不可타고 江華各官廳서用語改善을督勵

【江華】비상시국을당한 이때에 가튼국민으로서 한관청한자리에 안저서"센징"이라는말을 례사로쓸뿐아니라 공문서류에잇서서까지 종종 그가튼 문구를 사용하야 불유쾌감을 사는것은물론 더욱 이로인한 민족적색채를 띄우게함은 현하시국에잇서 재미롭지못한동시『센징』이란말외에도『반도인』(半島人)이라던가 또는『朝鮮人』이라고 조케쓸수잇는데불구하고 하필 그리할필요가 업다하야 강화도각관청에서는 종래에 사용하던 그가튼문구를 단연업새버리고 용어부터 재인식을 시키기로되엿다한다

春川藥水터에 不良男女打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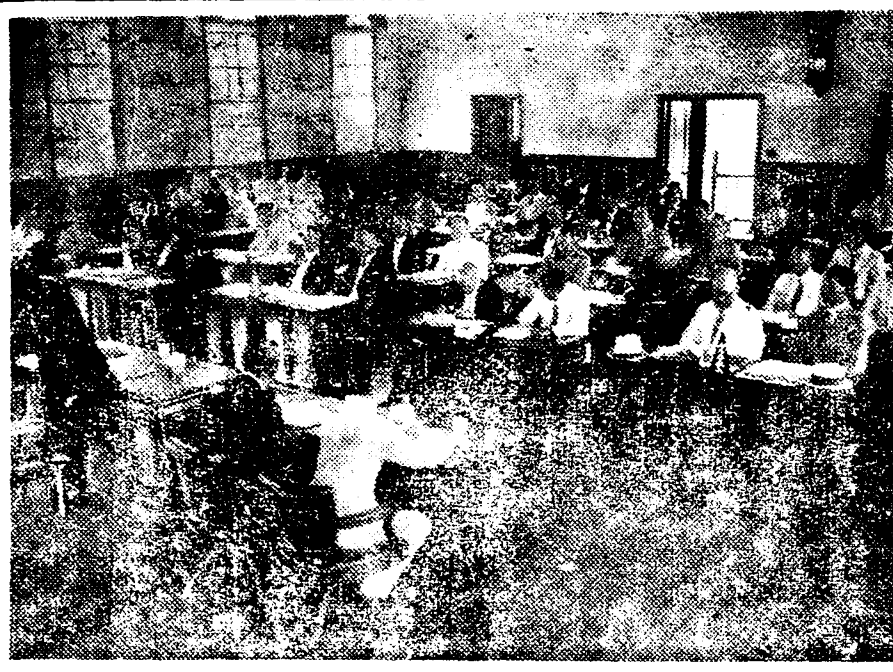
【春川】춘천군북산면 추곡리(春川郡北山面秋谷里)에 잇는 소위『가래꿀』약수(藥水)는 춘천읍(春川邑)으로부터 약팔십리떠러저잇는곳인데 이달 초순부터 불량남녀 오륙인이 나타나 밀할수업는 추태를보혀서 이것을 탐문한 춘천서에서는 전중(田中)사법주임이하 형사대일동이 지난십사일현장에급행하야 그일당을 일망타진하엿다 그중심되는자는 주소부정한창진구(張[illegible]) 김로준(金魯俊)등이라한다

上仁川道路舖裝
工費一萬二千圓으로 오는十月末에竣工

【仁川】약진도상에잇는인천은작금의부세가 대발전을하고 잇는것과가티 상인천역의 승강객은날로 증가하고잇다 그러나동도로는아직것『베프멘트』(鋪裝)를하지아니하야 비오는날은 통행하기에 불편한점이 적지안튼바 인천부에서는 이만이천이백원의공비로경정(京町)파출소로부터상인천역까지에이르는도로에 장포하기로하얏다는바 총연장 사백십삼미돌(米突)에 널비는현상그대로이며 헐리는곳은오지(OG)가페와 경인려관등삼호이라한다

撤去華商의投賣로 春川商界에打擊
포목、잡화상모두쓸쓸

【春川】북지사변(北支事變)발생이후 아직까지 아모별달른기색이업든 춘천(春川)일대의 지나인들은 수일전부터 동요하기시작하야 농사에 종사하는사람들은 농작물은물론 농구와 부속가옥지도투매하며 읍내상인들도 포목(布木)과 잡화(雜貨)를 헐가로 팔므로 그상점일대는 매일장을일우고 멀리수십리되는 촌에서까지 사러오는사람이 적지아니하야 상당히 잡답을일우고잇는데 그반대로 조선인상점은 그영향으로 극히한산하여저서 타격이적지안타한다 한편지나인음식점영업자들은 외상수금에 급급하고잇스며읍내(邑內)의 음식외상대만은 오천원에 달한다고 한다



府尹、郡守、署長等召集 訓示事項을傳達
廿一日午前京畿道서

이십일일 오전열한시부터 경기도회의실에서 도내각부윤 군수와 시내경찰서장 소방서장 중등학교장을 소집하고 지난이십일 남총독(南總督)의 제이차중대시국훈시에 대하야 여태까지는 북지사변(北支事變)이든것이 제부터는 일지(日支)사변으로변하고 불확대(不擴大)주의가 응징주의로 변한것에따라 여러가지 주의할것을 전달설명하엿다 (사진은 경기도청에서 훈시전달하는광경)

無理한地價要求고테 及其也地料引上
끗내말성인仁川村田某의土地

【仁川】인천부송현정(仁川府松峴町)칠십이번지 오십이호주민에 대하야 평당사십원에 매입치안흐라면 철거하라고 하엿다함은 루차보도한바와갓거니와 그간주민대표수씨가 지주촌전(村田)모를방문하고 무사해결을 도모하엿스나 지주는 역시평당사십오원을 고집하고잇서 쌍방의교섭은 마침내 결렬되고마럿다 그러나 동면지난이십일부터 지주측으로부터 현주민을 조사하기에 이뜻을무릅썻는바 물일지료인상에 대한 정식통지가 오리라고하엿다하니 이는남의기지에주거하는 세궁민의 약점을엿보아 지료를 인상하는것이라하야 그대책을 강구코자주민들은 방금회를열고 강구중이라한다

트럭과衝突 靑年이重傷
京仁街道에서

【素砂】지난십구일밤열시삼십분경에 경인선소사역전(京仁線素砂驛前)소신자동차부(素新自動車部)"트럭"은 경재칠천이백이십칠호화물자동차를 부천군소래면신천리(富川郡蘇萊面新川里) 리종웅(李鍾應)(二一)이가 림시면허를 어더 운전해가지고 서울로갓다가 오든도중 소사에서 약삼마장되는 벌응절리(伐應節里)아페왓슬지음 십여대의 자전거를타고 몰여오는청년들이 갑작이자동차를맛나게되자 급히피하다가 그중부천군남동면 고잔리(富川郡南洞面古棧里)일백이십번지 오리섭(吳利燮)(二六)과충돌되여 자전차는 산산히부서지고 전기오리섭은중상을입어 곳소사병원에 다려다 응급치료를바든결과 겨우생명은건지게되엿는데 소관소사주재소에서는 량방을취조중이라한다

地方人事

▲李柱宜氏(揚州稅務署屬)京城稅務署榮轉人事次本報揚州支局來訪
▲金敎奐氏(揚州稅務署屬)淸州稅務署榮轉人事次同上
▲古川勝雄氏(揚州稅務署屬)京城稅務署榮轉人事次同上
▲朴壽容氏(揚州稅務署技手)原州稅務署榮轉人事次同上

=長篇小說= 花冠【24】
李泰俊 作 金奎澤 畵

세화살 (八)

그러나 어찌어찌 다리를 허우대니 엄지발고락 하나가 끗이 닷는다。거기다 힘을쓰려하니모새비닥은 이내패여드러갈뿐 어느틈에 입과코로 살대기튼찐물이 몰려든다。얼른 솟구어찐물을 배아텃스나 머리에서 쏘다지는물때문에 공기를 드려마실새기업게 또입과코는 물속에박혀버린다。물단이 누가 코를쥐고먹이듯 목이 뿌듯하게 넘어칸다。『인천 소리를처야……』하는 의식에 철적 다시 한번솟앗스나 소리를 내일 숨이 업다。지척인데서 아이들은 그저 모른척하고 조개만 잡는것이 눈에 드려온다。또 입과 코로는 쓰라리도록 짠물만 드리온다。가를 써 또한번 소사 눈을떳다。누군지 시커먼 그림자가뛰여든다。동옥은 그제야 사나보라고 소리를 치며 철벙철벙뛰다 시펏다。손에 무엇인지 잡히기가 무섭게 끄러안으며 매여달리며 발브며 집호며 올려

소사다。사나이의 팔이요 허리요 억개엿다。벌서 물에 뛰여들어 마주나오는 사람이 여럿이엿다。숨을 돌려가지고 눈을 떳슬때는 정히、배일연、문희평、론기、유한매당、그중에는 양복바지채 드러선、김장흔의 동그래진 눈도 보히엿다。동옥은 부끄러워 어된지도 모르고 나려노달라고 몸부림을 첫다。

『하마트면……』

소리를 숭차게내이며 자기를 나려놋는 사람은 황재하다。아직 허리께차는 물이다。동옥은 정히에게 부축이 되여 머리모습부터 다듬으며 나왓다。모두 엉디며 물을 토하라 하엿스나 동옥은 무안스럽기만 하여 물을 먹지안헛노라 위기고 정히와 함께별장으로 드러오고말앗다。

동옥은 종일 자기방에 누어잇섯다。몸도 느른해젓거니와 몰괘해 견될수가 업다。

『재하 아니더면?』

『하마트면……』하는 생각을 하니 자기를 나려노코 큰고기를 잡은 어부처럼 만족해하면서 재하의 얼굴이 작고 눈에밟힌다。

『다른사람들도 마침 나왓지만 내 모습을 건진건 아모런 황재하다……』

동옥은 옴짝할수업는 운명의 사슬이 팔목에 느껴지는것이다 아모리 재하와의 로맨쓰분위기를 벗어나려 딴쓰도 하지 안코 빠저나갓스나 그것이도리혀 역효과를 나타내인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어는 한편이나 게회적이 아니요 온전히 우연인것을 생각하면 로맨쓰라고 하기에는 그 밀도가 오히려지나처 운명이라고 할만치 심각해진 관계를 느끼지 안흘수업는것이다。

동옥에게 이러케 느껴지는것이 재하에게 아니 느껴질리도 업다 재하는 거이 한시간에한번씩 동옥의방문을 노크하엿다。인단을 사온다 사이다를 사온다、물을 끄려온다 점심을 잘먹지 안햇다고 자기가 손수팽[illegible]을 만들어온다 햄엑을만들어온다 완전히 동옥의 보호자로 자처하는 태도가 뚜렷해지는것이다。

밤이 되엿다。깨 기퍼저 집안은 비인듯 고요하다。동옥은 아침에 물에서 놀란것이 오매가 되여 이따금 누가 흔들기니하는것처럼 깜짝 놀라여 눈을 떳다。눈을 뜨면 은빗가튼 뼈ー안 달빗과 버레소리뿐이다。

『버레는 가을을 기다리고…』

소리가 우연히 나와진다。자기도 무엇을 기다림에 들리지안는것 가텃다。

『무엇일가?』

생각하다가 다시 잠이 든다。그러나 잠은 디시 놀라깨여진다。그리다가 한번은 달빗과버레소리뿐이 아니요 재하가 침상아페 안저잇는것을 발견한것이다。

재하는 거므스름한 파자마를 입어 얼굴만이 더욱 또렷이드러낫다。눈이 웃는지 입이웃는지 모를 미소를 띄이고 잘결에 던지여진 이편의 손하나를 두손으로 가벼히싸쥐고잇섯다。

동옥은 고요히 한편 한번을 하엿슬뿐 어제저녁 해변에서처럼 재하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엿다。

『동옥?』

동옥은 잠간 새이를두어

『감사합니다』

하고 처음으로 구원바든것을치하하엿다。

『아직 아홉이나 남은 당신손가락에 나도 하나 끼여드릴수 잇슴니까?』

동옥은 방긋이 웃기만 하다가

『누가 손가락 수효대로 반질끼나요?』

하엿다。

『누굽니까?아직까진 제일조혼이란?』

『우리 어머니세요』

하고 동옥은 비밀아닌 비밀을 풀어주어버리엇다。

虫齒를업새는……
라이온치마분

不潔한齒牙는
虫齒를만들뿐안이라그虫齒가原因이되야胃腸病은勿論여러가지病을일으킵니다。
每日、라이온치마분으로齒齦를淸潔히하십시다。

001060

10C—120

本舖 株式會社小林商店

淋疾·梅毒專門藥을

全鮮五千名樣에限하야
藥價半額後拂發賣!!

新聞全面廣告나 百萬語의 說明書보다 오즉實効로 宣傳키爲하야 本所創製인 淋疾 梅毒專門藥을 藥價半額後拂發賣를開始합니다 아무리頑固한 淋疾 梅毒이라도 本所創製藥을 左記藥價의 半額만支拂하고 試服하야보시요 반다시 本所創製藥의 効力이얼마나 迅速한것을 곳아시게될것이올시다 但五千名定員超過時에는 未安하오나 半額後拂發賣는謝絶하오니 至急注文하시오

注文規定
藥을注文하실때에는 淋疾藥二圓半을 一圓二十五錢 梅毒藥三圓을 一圓半만을 振替로付送하시면 淋疾藥十日分이나 梅毒藥十五日分을 發送합니다
한번試服해보시면 반다시 第二回注文을하시게될것이오니 그때에 前藥價殘額을보내주서야만 第二回注文하신 藥品을發送합니다

人類의大敵淋疾梅毒은일로서撲滅!!
淋疾에는 消淋丸 十日分 二圓半
梅毒에는 征毒丸 十五日分 三圓

製造發賣元 京都市右京區西院花田町三六
漢方醫藥研究所 振替京都一〇一三九番

(文献贈呈)
모루히네慢性中毒에
福모나ー루
モルヒネ、ヘロイン、阿片、パントポン、コカイン等其他同類麻醉藥の中毒症
注(皮下) 包(服用) 5入 10入 20入 50入
製造元 大阪市東區道修町 順天堂醫化學研究所
發賣元 田邊五兵衛商店

高藥大王

主治効能
◉무슨종기든지 시초에사용하면 피발이삭고 몽올이 풀니며 종기가되지안습니다
◉성종된후에사용하면 악지공기며 고름과 근을 곳빼려내여 거먹생신이 속히됩니다

藥價 五錢 十錢 廿錢
(全國藥房에서販賣함)
京城府 天一藥房 鍾路町

女性ホルモン
オバホルモン
오바호루몬
國際標準品과곡一致되는結晶製劑
本劑는女性特有의機能을發現식히는外에卵巢機能을活潑히하야——
月經不順、月經過多、月經寡少、月經痛、神經衰弱、憂鬱症、頭痛、逆上、耳鳴、心悸亢進、腰部·四肢冷感等을緩解하고、新陳代謝를促進하야써健康을保護增進식힌다
乳汁分泌促進에도賞用된다
錠劑(百單位) (五百單位) 粉末(一瓦=千單位) 注射液 [illegible]
武田發賣品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東京代理店 株式會社 小西新兵衛商店 東京市日本橋區本町
製造元 株式會社 帝國臓器製藥研究所 川崎市大宮町
37—1075(O)

冷房完備 若劇
十九日ヨリ 五日間 晝夜二回 大人五〇錢 學生小人三〇錢
1 空の文化 2·40 6·40
2 踊る三十七年 11·30 3·10 7·10
3 大毎北支事變ニュース 南國太平記豫告 1·00 4·40 8·40
4 樂園の合唱 1·15 4·55 8·55
(二) ワーナー一作デイツクボウエル主演 (四)P C L全ユニツト作品 藤井貢、椿澄江 外總出動

桃花劇場 (電龍)一三三三番
◇八月二十日부터三日間!! 毎日晝夜二回大公開(夜七時半始映)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二大特作巨篇上映)
◇파라운트超特作全發聲日本版!! 戰爭戀愛劇新版 모록코 巨匠…요셉프온스탄바ー크監督作品 主演…케ー리쿠ー파氏 마레네데이도릿히孃 助演…아돌프만주氏
◇마키노超特作全發聲映畵!! 時代劇 龍虎槍騎隊 前篇九卷 監督…廣瀨五郎 主演 大內德磨 光岡龍三郎
豫告‖逆襲‖前科者‖潛水艦SOS 춤추는海賊

往十里町 光武劇場
◉八月廿日부터三日間 ▲納凉映畵特選公開▼ 炎暑八月二十一日까지場內整理로 夜間限上映 大衆料金十錢均一、밤八時始映
▲리차드、달마치푸로덕슌特作映畵 大冒險大活劇 冒險俱樂部
▲新興키네마特作映畵 全發聲現代名篇 都會의船唄 鈴木傳明、高津慶子主演
▲마이다、크라프社特作映畵 大喜活劇 令孃과왕君 歌川八重子、霧立登主演
▲東日、大每 新興(發聲)ニュース
次週映畵‖藥光海賊船、快走大突破、連戰連勝、兒雷也、藝風、靑空士官

戰時經濟體制下 米穀增産을計畫

農事改良、反當增收를目標

灌漑改善이主眼點

對支關係의 全面的惡化로 今 日本의産業經濟는 이미 戰時體制로들어가 모든部門에 計畫과 統制는다시當理에로 强化되고잇는中 問題는當局物資의供給이主眼點이되여잇서 增産計畫은 各部門을 通하야 着着進行되고잇는中인데 金産擴始한 鑛工業의 大規模의 開發도 이에起因하여고 一面 農業方面에 잇서서도 各種經濟作物의 獎勵가 勵行되어왓는데 朝鮮農業의 大宗인米作에 對하여는 日本內地米와의 衝突、其他價格과 數量의 統制에對한 政治的關係로 這間施行中이든 産米增殖計畫도 中止되엿섯다 그러나 이미 時局이急迫한狀態에 이르러 米의增産은 一般國民의 食糧問題로나 非常時의 準備로나 이의增産의 必要를 認하고 總督府에서는 明年부터 相當한 規模로 增産計畫을 實施키로 方針이決定되여 進行中이다 그內容은 아직公表할程度에는잇지아니하엿스나 大略한것은 于先 品種의改良、施肥其他의 農事改良으로 反當增收를 目標로 하는 同時에 土地改良도하되 應急的으로 灌漑改善에 主眼點을 두게되는것이다

臨時機關設置

西本商工課長渡東、中央과協議

歸任後具體案作成

戰時體制下의 朝鮮의産業經濟統制에 强力的臨時機構設置에 關하야 總督府에서는 着着準備中인데 西本商工課長은 二十二日午後二時四十分發『노조미』로渡東하야 非常時立法과 財經戰時體制化의內容에對하야 中央의意向을듯고 拓務省其他關係方面과 協議하고 歸任後朝鮮으로서의具體案을作成하리라한다

商議緊急總會

京城商工會議所에서는 二十一日午後一時 緊急議員總會를 開催하고 賀田會頭로부터 南總督의時局에關한 訓示를傳達하엿다

工鑛業優先發達擴充!

朝鮮의 戰時經濟統制가 엇더한程度의것인지는 지금明瞭치안으나 政府와步調를가티하야 萬遺憾업기를 期하고저한다 從하야 政府의 具體案은 그대로 朝鮮에도 適用될것으로 생각되는데 南總督이 昨日時局對策訓示에잇서 朝鮮內諸産業의 急速한發達促進을 强調한것은 特히注目된다 總督府에서는 右訓示에基하야 殖産局을中心으로 適切한具體案을立案하고잇는데 時局關係産業의 發達擴充이中心問題가 되겟스며 農林關係는 二次的이 되리라하나 農林局關係로도 無水酒精原料其他國防工業原料作物及 食料의充實은 時局關係産業으로서 優先的으로考慮되겟고 農林局에서도近間具體案研究에 着手하리라한다

朝鮮의洋灰 操短擴大論

洋灰聯合會에서는 過般의 總會에서 操短擴充問題를 附議하얏는데 同會議에서는 朝鮮의 操短率擴張이 猛烈히 主張되어聯合會에서는 朝鮮側에 要求하기로 決定하얏다 이것은 現在日本內地의 五割六分의 操短에 對하야 朝鮮은 三割六分의 操短을 行하고잇는 現狀에 鑑하야 日本內地의 操短을 擴充하는것보다 先決問題로서 朝鮮의 操短을 擴大하야 內外地間水準으로 하자는 强硬論이 잇다한다 그러나 朝鮮으로서는 朝鮮의 洋灰需要는 繼續하야 累增이오 操短擴充을必要로하는事態는全然考慮되지안는 狀況임으로 朝鮮으로서는 斷然 이에는應할수업는立場이다 從하야이問題는 今後相當히 데리게 ―紛糾할形勢를보이리라한다

「까소린」續騰 또五―八錢値上?

朝鮮內의『까소린』協定은 今春의 消費稅新課에 依하야 까론五錢의 値上을보아 一까론六十一錢이 되는데 强硬議會通過의 關稅定率法의 改正及 항카ー레ー트의 騰貴等으로 九月上旬부터 五錢乃至 八錢의 大幅値上이 豫想된다한다 目下商工省의 認可가 未定이므로 値上幅은 알수업스나 關稅의 增大로 까론五錢의 値上은免할수업고 이에다가 항카-레트等을 加하면 最低五錢程度의 高價로되겟고 朝石에서도 總督府에 對하야 八錢乃至十錢의 引上을 要望하고잇다 結局時節關係로 當局의 裁定은 最高八錢引上程度로 落

粟輸入累計 七十七萬四千石 四十九萬餘石減

粟輸入은 五千餘石으로 前年의二萬一千餘石에 對하야 一萬六千餘石의 減을보이고잇고 이것을十一月以後累計로보면 前年의百十八萬六千餘石에 對하여七十七萬四千餘石으로 四十九萬二千餘石의減을 보이고잇다

米移出累計

百九十四萬五千石減

―六百四十五萬三千餘石―

八月中旬中 朝鮮의米穀移動狀況을보면 米移出은 前年의十五萬六十石에 對하야 五萬六千四百二十二石으로 九萬四千石의減을보앗고 十一月以降累計를보면 六百四十五萬三千餘石으로 前年의八百三十九萬八千餘石에比하야 百九十四萬五千餘石의 減少를보이엇다

鮮滿拓殖會社 資金計畫注目

二宮鮮滿拓殖總裁와 堤專務는 二十一日渡東하야 本年度와 來年度의 資金計畫에 對하야 中央政府與『신디케-트』銀行團과 折衝할터인데 同社는 興銀、鮮銀、一銀으로부터 一千萬圓의借入金을할 諒解를 得하얏지만財政、經濟戰時體制移行에 依한 資金統制等이 政府의 新政策의一로서 나타낫스므로 多民資金과 如한것을 調達할지 疑問되고同社의 資金計畫은 注目된다한다

義州製鍊所未定

尾形三井鑛山會長談

三井鑛山會長尾形次郞氏는 滿洲液化油會社創立總會出席後 新義州方面의 義州鑛山 三成鑛山等 鑛山을 視察하고 二十日午後二時三十一分着 入京하얏는데 如左히말하얏다

新義州地方에 製鍊所를 建設할 計畫은 以前부터잇섯스나 着手時機等은 아직 생각치안엇다 規模는 萬若한다드래도 同地方은 買鑛에 不便하야結局自己의 鑛石을 處理할程度이겟다 朝鮮의 所有金山義州와 三成의 積極的採掘이라던가 朝鮮서 買山의 積極化等은 생각치안코잇다 設備를 擴張한다드래도 第一條件은 探鑛이오 有望한것이잇스면 買收할터이다 金의增産은現下의 日本의 急務임으로 勿論産金業者로서는 될수잇는대로 이方針에 順應하야가고저한다

朝鮮建物九月開業

朝鮮建物會社에서는 來二十一日午後一時부터 近澤빌딩三階同社에서 定時總會를 開催하고上半期決算事業報告承認、監査役選任件等을 附議하리라는데 同社는 準備工作中이더니 來九月一日부터 營業을開始하리라한다

各製鍊所買鑛戰

費用이만코苦惱深刻

朝鮮內의 製鍊所는 日本鑛業 朝鮮製鍊 朝鮮鑛業開發의四個所外에來月부터 새로이 住友의文坪製鍊所가 加하고 三井系의新義州製鍊所도 近間實現될것으로 朝鮮內의 此等製鍊所의 買鑛戰은金增産國策에 乘機하야 猛烈히 展開되리라한다 이미 旣設各製鍊所의 買鑛은 深刻한 競爭을하고 買鑛費는 豫想外로만히들어 決算面을 괴롭게하는데 最近은 鐵道局의 輸送制限에依하야 鑛石의 運搬이 거의 不可能하고 遠距離의 買鑛은 輸送不可能임으로 山元에서 貯藏치안흘수업고 金利其他 失費를 느으면 相當한 打擊이되어 各製鍊所는 以前보다도 더苦惱中이라한다

鑛業開發來年增資

朝鮮鑛業開發에서는 今回倍額增資(資本金을六百萬圓으로增資)키로되엇는데 當初는一千萬圓乃至一千五百萬圓程度로 增資할計畫이든것을 變更한것으로 同社는來年東頃까지에 新株의第二回拂込을 徵收한後 更히一千萬圓乃至 一千五百萬圓程度로增資할豫定이라한다

平壤에買鑛所新設

朝鮮鑛業開發에서는 目下平壤(西平壤驛前)에 買鑛所를 建設中으로 十月頃부터 營業을 開始할터인데 右는西朝鮮方面의 中小金山을 目標로 集鑛하는 同時에 平南北의 自山의 諸種便宜에 供하리라한다

石炭移出港 積出施設擴充

無煙炭業者要望

【平壤】平南工業의 勃興에따라 石炭需要가 各地에서 부쩍늘게되어 平南無煙炭業界에서는 時代에 順應하야 擴大하야지는 需要를 調節하고저 出炭三百萬噸을 目標로 新朝鮮炭社와 片倉等 各業者들은 全部가 大增産計畫을 세우고잇는데 新朝鮮無煙炭會社에서는 運搬道路建設工作에까지 積極的으로準備를하고잇다 그러나 日本內地에 보내는 無煙炭의 數量이 激增될것을 豫測하는이때에 그移出港인 保山과 鎭南浦의 積載施設은 現在로보아서는 極히 貧弱하야 保山은 全能率을 發揮한대도 겨우六、七十萬噸이 積載에 곳치며 鎭南浦도 四十萬噸이라하나 二十萬噸內外에 不過함으로 保山은 仙一帶의 土地를買收하야 大規模의 積載施設을하야 적어도 百萬噸을 鎭南浦도 六十萬噸을充分히 積載할수잇도록하고저 無煙炭業者들은 鐵道局에 擴張을 要望하고잇는바 鐵道局에서는 會社側이 自擔하야 한施設에는 鐵道局과 關係不可能하다하야 今秋中에 具體化할것으로 豫想된다

郵便貯金受拂狀況

全鮮郵便貯金의 七月中新規預入人員은 四萬六千八百七十一人 全拂人員은 一萬九千八百四十八人으로 結局二萬七千二十一人을 激增하얏는데 七月中預入總金額은 一千百七十一萬九千三百九十九圓이오 拂戾總金額은一千二百五十萬七千三百四十四圓으로 七月末現在 預金者總數는四百一萬一千九百五十五人、其預金總高는 六千百十五萬八百三十二圓에 達하얏다

米穀販賣高調査費를要求

自治管理配定의基礎

米穀自治管理法實施의 基礎가될 生産高、移動高와 現在高의 三大調査는 實施되엇는데 總督府에서는 明年度부터 販賣高調査도 倂行키로되여 이에關한 豫算十數萬圓을 明年度豫算에要求키로되엇다 이調査는 自治管理法의 規定에 依한 配定基礎가 될것으로 一年을 四月로부터七月까지 八月로부터 十一月까지 及 十二月로부터 三月까지의三期로分하고 其期間의 生産者와 小作料로서 米穀을受하는者即米穀統制組合員의 第一次販賣高를 調査할터인데 이에依하야 自治管理關係의 諸調査는 全部行케되리라한다

自治管理法實施?

內外地米一億突破說

今年의 米作은 天候가 조와서 內外地가 모다 未曾有의豐作이 豫想되고 內外地를 通하야 一億萬石突破說도 잇는터인데 米價는 豐作豫想으로 漸落傾向이오 最初의 米穀自治管理法의 發動을 보리라고 豫想된다한다

寸鐵

▲事變不擴大方針一擲으로 株式市場도 可恐할事變市勢演出 ▲非國民的이아니라 元來事態가 큰까닭 ▲總督府서또 戰時經濟體制의 臨時機關設置研究中이고 米穀增産을 計畫한다고 産米增殖計畫을 中止하든때와는 달라진때로다

取引所 (八月十八日) 京城 請負業 古市町四三 石橋芳二

今日財界 廿一日

◆米 (單位錢)	今日前止	比前日
仁川期米先限	二六元	三低
大阪期米先限	三〇七	三低
◎三等米一石	三三〇	三〇低
京城白米百키로	[illegible]	不變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illegible]
一斤 偶三等	[illegible]	[illegible]
고무神戶現 天鐘毛	[illegible]	不變

◆株 (單位十錢)	今日前止	比前日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商品 大阪商品		
綿絲	[illegible]	[illegible]
棉花	[illegible]	[illegible]
人絹	[illegible]	[illegible]
砂糖	[illegible]	[illegible]

株式

再惡化大慘落

投物山積、軟派突擊

今日의市勢(廿一日)

大慘落을演한二十一日의朝取市場 鐘新二百〇六圓으로 모다棒下를 演하고 그後少戾裡에 大引되엇다

急轉棒下 鐘新二百六圓臺 東新도百卅圓割

連日漸落된 鐘新은 今朝에至하야 마츰내 投物이 殺到하야寄付六圓瓦落後 繼續하야 二十圓棒下를 演하고 東新도 新低價에로 投崩하야 市勢는 再轉惡化하게되엿다 이제 東京短期市勢로서 이를 보드라도 東新은百七十四圓天井으로부터 四十二圓六의 低落이며 鐘新은 三百二十一圓五로부터 百六圓幅의低落에 當하는데 常識的으로는低落도 거의 一巡되고 低價도그리 만치안흘것으로 보나 非常時의 市勢이므로 情勢轉換에따라 波瀾을 그리는것이니 반듯이어떠리라고 豫測을 내리기는 어려운것만큼 行動에는 操心이 必要할것이다

前場飛落

鐘新의悲觀的商狀으로 連日續崩되고잇는 市勢는 昨日의 首相聲明으로 또되어事變은擴大될것으로 豫想하고 上海의高射砲彈米艦命中事件은國際問題化가 憂慮되는等 今朝寄付에는 다시人氣가 再次惡化動搖하야 東新高로 買付하엿든大衆賣物은 모조리投物化하야 鐘新은六圓低로 寄付하고 東新도 三圓八低로 瓦落에 寄付한後 低迷狀을보이드니 마츰내 大幅落을演出하야 東新百二十八圓五

雜株一齊崩落

主力株暴崩으로 雜株도 鐵維化學工業株等을 中心으로崩落을演하엿는데 그氣配는 如左

國債 嫌氣投로 軟弱

【東京電話同盟】小額債券의壓迫念慮乃至事變公債의 發行擴大가 憂慮되어 嫌氣投物이 만히 日興의防戰으로 겨우 低落을下支하엿는데 內地價一回四分期近은 十錢下押하고 佛貨는 有力側處分賣物로二十錢低落되엿다

◆甲五分利 一〇一〇〇◆二回四分利 一〇一三〇◆佛貨 一九四五五

期米 追擊猛烈 續落

前場低迷

今朝는兩天으로 阪地卅圓九十五錢인 十二丁反落을排하고 當地先限은 廿八圓卅錢인 十一丁低로場을始한後 阪二節八十二錢의 續落을作하야 二節廿七錢까지 下落하엿는데 此邊에는 金太及丸ウ店其他地場側의利喰買物이現出하야 阪地九十錢으로 小戾함을말아 四十五錢까지返戾하엿다가 結局阪止七十一錢을보고 廿八錢으로 廿九錢에止場하다

好順市勢一巡?

當地先限은 當中兩限의總解合과共히 又一層軟味를助長한데다가 阪地의市場까지 當地解合의 餘響을受하야 中限은今朝三十二圓五十錢臺의瓦落을演하고 先限은 三十一圓臺를 割破하야 兩地가 呼應의低落을 告하는好順氣의行動을 餘儀케시 一巡하엿다고할수잇다 阪地는아직商勢가貴한모양가트나 當地는 先限의低氣로 阪仁의期가 二百六十餘丁의 擴大를示하기까지에 至하엿슴은 아니라 價位觀으로도 阪地三十圓臺 當地二十八圓臺에는 絕對實力針은 一考를要할것도같다 卽前上天候가 今後如何히變化를示할지 颱風時期에入한 此際인만치 實安心하기가 難하거니와 來月의 百丁下鞘를 豫想하면 阪地二十八圓臺에 當地도 二十七圓臺의 低位에 잇슬거슬 可期할수잇다 그러면 昨年秋季의 阪地二十八圓三十七錢當地二十六圓十三錢의最低價에比하야 百十圓外의上位에 잇게되다

强弱觀이對峙

當地市場은 適般以來地方來客은 擧皆買成을하여와섯고地場側은 旣히解合된 中限賣의戰線延長으로 先限에도 賣買成을하여와섯다 그런데 今回當中의總解合이 先限의賣氣를助長하야急轉瓦落을 告하자 來客의買物은 於焉間損退하는 傾向이오 地場側은 바야흐로 利喰에及하고모양이다 勿論此邊은 價位觀으로도 更히資加할餘地가적고 또七分作인稻作의目前良好를보고서 買過함은 時期尙早의感이업지아니하다고하나 人氣市勢化하게되면 採算은둘의 問題요 低落은앞슬것을 생각하면 지금에時局關係로因한 消費力의增進 明年度政府買入의膨脹 諸物價의不退等을 豫想할수잇서 豐作人氣로 賣叩되는것도 買下한다는것도 자미스럽겟스나 이도아직은 좀時期尙早의感이不無하다고아할수잇다

朝取期米取組內容

先限 ◇賣方 ◇買方

金太 一六〇〇 지 七〇〇 ... [illegible]

正米 定期低로奔落

京城落調

今朝定期는 拂下決定豫想으로 一齊急落을演하야 三엿다 正米도 이에追隨하야 三十錢低唱이엇스나 品薄으로 市勢는 比較的底堅이엇다 ㊀三等三三、三〇 四等三二、〇〇 一等白米一三、七五

仁川崩落

着荷不順과 現物薄으로 超割高를 示現하고잇든 市勢도 期米의 一齊崩落에는 抗하기難하야 一擧卅錢低로 崩落의 一途를 밟엇다 ㊁穀良坊主三等三三、三〇 四等三二、〇〇 銀〇 多摩錦三等三三、五〇 四等三二、九〇 一等白米㊃一三、七五 ㊀一三、五五

釜山奔落

適品薄으로 精米側의 買氣도 杜切되기쉬운때에 定期急落으로 一般人氣는俊度로 沈靜하야 市價二十錢低의 奔落을告하엿다 ㊂三等三三、〇〇 四等三二、九〇 一等白米一三、八五

大邱保合

目前不味로 一般은 實際薄商하고잇스나 在米僅少로 實態度도 强硬하야 目下로는 不賣不買의 閑散商狀이다 ㊂三等三三、七〇 四等三二、五〇 一等白米一三、六五

群山續落

依然出廻皆無의 現狀이나 續落하야 對日本內地商談의 傍觀과 今朝期米의 低落으로 賣氣가못 萎縮되고 市勢도 三〇錢低로 續落이엇다 ㊂三等三三、七〇 四等三二、五〇 一等白米一四、三〇

木浦下落

商勢沈滯의 市場이나 各地定期의 急落은 永眠市場을 刺戟하야 氣配는 三〇錢低를보엿다 ㊂三等三一、八〇 四等三二、五〇 一等白米一三、九〇

京城物價 (廿一日)

◆白米(五斤、單位錢) 多摩錦特、二七〇 一等、二六〇 二等、一六〇 카메리야七、九〇
◆麥粉(二二瓩、單位錢) ... [illegible]
◆肥料(一〇貫、單位錢) 硫安(各種混) 三、九五 過燐酸石灰(仁川沖) 一、〇四 豆粕(安東滿一등) 一、〇〇
◆紙物(單位厘) A模造紙(斤) 二二七 中質印刷紙(同) 二二七 半紙純因州手四貫四〇 朝鮮映畵紙(塊) 三〇〇
◆燃料(塊、單位錢) 溫突紙(全州一枚) 四五 撫順石炭 塊 一九、二〇 塊炭二六 二二、九〇 京畿檢査木炭一等 (二〇瓩) 一、四五
◆洋灰(五〇瓩袋、單位錢) 小野田 一、〇八 淺野 一、〇八
◆砂糖(百斤、單位錢) 白一二、三 分蜜一九、八八 角一四、五〇
◆織物(單位錢) 帝絲引平板赤門(疋) 一、一二 丸釘 一吋(樽) 一七、六〇 鐵線六番(一〇貫) 九、七〇 丸鐵二分(同) 九、八〇
◆海産物(單位錢) 乾明太(駄) 一〇〇 乾大口魚(斤) 二二六 알 치(手) 八〇、一一〇 팟지미역(手) 五〇
◆染料(斤、單位錢) 硫化黑 一三〇
◆塗料(單位錢) 白페인트(二二瓩半) 八、九〇
◆와니스(單位錢) 木材(才、單位錢) 紅松 一、一七 杉 一、一六
◆本綿(反、單位錢) 人絹 毛本綿 綿絲紗 文化絹 [illegible]
◆牛皮(乾百斤、單位錢) 大皮 小皮 中皮 一等 同 二等 [illegible]

期米 康益夏 仁川

株式 期米 玉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柳來恒取引店

期米 趙俊鎬取引店 仁川 米豆取引所前

海外經濟 (二十日)

[illegible]

銀行券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鰯油粕·麥粉

◆阪神鰯粕 [illegible] ◆神阪鰯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東京金銀價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金買入價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紡織製品 [illegible]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算定代引日步 [illegible] ◆短期主要取組高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當取期米賣買高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綿系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大阪綿系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生系

◆橫濱生系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illegible] ◆東京砂糖 [illegible]